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VA·MD·DC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COPY RIGHT 2026
MEDIA CENTRAL NEWS
제 60120호 Monday November 16 2026 A

트럼프 '거래의 기술' 3각 파고 넘는다



(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9일 선전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3차대전 위기 잠재울 실용 결단" 기대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역사적 담판의 막이 오른다.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다. 미·러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만료된 지 9개월 만에 핵무기 상한선이 사라진 무규제 시대가 열린 가운데 성사된 초유의 '빅3' 회동이다.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을 두고 뜨거운 기대와 팽팽한 신중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관료적 다자주의와 이념 중심의 전통 외교 문법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실용적 직거래로 글로벌 난제를 풀겠다는 트럼프식 돌파력에 박수를 보내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일방적인 외교적 선전 무대만 내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국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국정 동력을 재점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던진 승부수인 만큼, 선전 담판의 성패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반기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사회 일각과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설' 같은 극단적 음모론과 종말론적 안보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글로벌 파국을 막아낼 결정적 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유럽의 장기 소모전과 중동의 화약고가 동시에 연쇄 폭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핵 버튼을 쥔 세 강대국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를 제어하는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워싱턴 기득권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명분과 외교적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세계가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비판론이 펴져있다. 오직 기존 질서의 틀을 깨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강대국 지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파국을 막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백악관 측 역시 정상 간의 직접 소통 채널 가동 자체가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이 이번 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로 기대하는 대목은 '3자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 해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다. 냉전 종식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핵군축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핵전력을 급속히 팽창시키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까지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은 과거 어느 행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시도다.

특히 중동 정세의 조속한 안정이 미국 내 정치·경제적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란의 경제적·군사적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압박해 전쟁의 출구를 열겠다는 구상은 '끝없는 해외 개입과 소모전 종료'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확산은 인류에게 매우 위험한 위협이며,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 해결과 핵 감축이라는 본질적 의제를 직접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등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방중 일정과 맞물려 보폭을 넓히는 것 역시 미·중 간 경제·기술 갈등 완화와 글로벌 안보 합의를 아우르는 초대형 '빅딜'의 전주곡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정인 기자

» 2면 '미·중·러·정상회담' 으로 이어집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

FT "백악관 설득 시도"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CEO 자리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 측근은 황 전 CEO 복귀 로비를 위한 실리콘밸리 임원진으로 구성된 '전시 상황실'(War room)이 꾸려지고 있으며, 백악관의 지지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한 공개 캠페인이 힘을 얻고 있다.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스탠드 위드 젠슨'에 현재까지 15만6천여 명이 서명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공동창업자 등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황 전 CEO는 직원들로부터도 여전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역시 온라인 청원에 임직원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했다.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와 아트레이디스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창업자는 이미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황 전 CEO의 측근은 "프론티어 랩(AI기업들)을 제외한 테크 업계 모든 이들이 젠슨 황을 사랑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이 사안은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해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반출됐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황 전 CEO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와 맞서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새 경영진은 오는 17일 엔비디아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최대한 회사를 안정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황 전 CEO는 지난 12일 사임했으며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를 맡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수하물 연방항공청(FAA)이 미 전역의 항공기 이륙을 전면 금지(그라운드 스톱)한 13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 결항된 항공편의 수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 항공 당국에 따르면 미 전역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은 2001년 9·11 테러와 2023년 FAA 시스템 장애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이번 장애에 따른 항공결항은 15일까지 일부 지속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 관련기사 8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최대보상
끝까지 간다!
신성재변호사
FORTIS LEGAL GROUP
STRENGTH IN ADVOCACY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9711 Washingtonian Blvd. Ste 550
Gaithersburg, MD 20878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미인계·포섭·해킹·동업… 젠슨황 추문에 '중국 첩보활동' 다시 주목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추문은 미국 정·재계 최상위층을 노린 획기적 첩보활동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전 CEO의 불륜 상대자인 앨리스 황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간첩 혐의 수사를 계기로 과거 다수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의 첩보활동 구조를 14일 해설했다. 중국의 첩보 활동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일반 국민까지 동원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을 찾아내고, 포섭과 해킹, 사업 관계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다층적 구조다.

중국의 해외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 인민해방군 정보 부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 해커와 기업, 사업가 등을 활용한다.

한 유럽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가 정보·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약 60만명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와 중국 스파이 의혹받는 불륜 상대자 앨리스 황

사람을 통한 포섭은 중국 첩보망의 대표적인 작동 방식이다. 정보기관은 사업 기회나 연구 협력, 개인적 관계 등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접근한 뒤 점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던 중국인 위안스 첸은 2021년 MSS로부터 미 해군 직원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2023년 캘리포니아의 해군 모집 사무소 내부를 촬영해 최근 모집된 인원들의 이름을 확보했고, 이 자료는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됐다. 지난해 체포된 부부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같은 사람은 MSS에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없다"고 사정을 호소했다.

기술 확보에는 기업 내부자와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동원된다.영국 국내 정보기관은 중국 연구기관이 영국 학자들의 AI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뒤 결과물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100명 이상의 학자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첩보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린웨이 딩이 AI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상세히 기술한 2천쪽 분량의 기밀문서를 훔쳐 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혐의로 올해 초 유죄 평결을 받았다. 중국 기술기업들과 연계돼 있던 딩은 영업기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첩보 활동의 또 다른 축은 대규모 해킹이다. 과거 개별 요원의 은밀한 접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해커와 기술업체까지 활용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FBI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수가 자국 사이버 인력보다 최소 50배 많다고 추산했다. 이들 해커는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FBI는 중국 정부 연계 해커들이 미국 전력회사와 일본·폴란드 공항, 대만 대학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피싱 도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유사시 작동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를 여러 나라 핵심 기반 시설에 미리 심어놓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AI 경쟁에서도 정보 수집 방식은 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백악관은 중국이 수만 개의 대리 계정을 이용해 미국 AI 모델에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산업적 규모로 지적재산을 훔쳤다고 비난했다. 앤트로픽은 중국 AI 기업 3곳이 자사 챗봇 클로드에 1천600만번 넘게 질문해 자체 제품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기술 문서 탈취를 넘어 AI 모델의 답변을 경쟁사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이처럼 첩보 활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술 격차가 경제와 군사력, 나아가 체제 안보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기술·군사적 격차를 좁히고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AI와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탈리아 피터슨 연구원은 "시 주석과 미국 모두 AI가 진정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첩보 활동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의 공격적인 정보활동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이념전쟁하다 망쳐선 안돼" 자성론 봇물

"민주당은 보호관찰 기간에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제이슨 크로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심이 민주당을 대거 지지해 중간선거 압승을 일궈낸 게 아니라는 일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 대승의 근본 원인임을 상기시키면서 민생 성과로 보답해야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WP는 15일 보도에서 12~14일 민주당 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콜로라도주 덴버 행사에서 이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자칫 당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민생에 직결되는 성과 확보를 소홀히 하고 온건파와 진보파의 대립을 방치했다간 2028년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백지수표'를 써준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장인 돈 스콧도 "누구도 민주당에 빚진 것이 없다"고 했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한 민심이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제이크 오킨클로스 하원의원은 연단에서 "우리는 미국인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 당은 너무 오래 너무 나쁜 아이디어들을 허용해왔다"고 일갈했다.

그는 "2028년 대선주자들이 상식에 반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 아이디어들 중 어떤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인지 말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WP는 "중도 성향 단체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주당의 차세대 인재를 소개하자는 자리였지만 끊임없이 이념 전쟁에 휘말리는 민주당이 성과를 망칠 수도 있다는 만연한 우려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다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28년 대선 도전을 내다보고 있는 민주당 주자 여럿이 연단에 올라 중간선거 압승을 대선 승리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 코리 부커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피트 부트지지(사진) 전 교통장관, 로 카나 하원의원 등 최소 8명의 잠재적 대권주자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내년 1월중 출마 여부를 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선 출마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 1면 '미·중·러·정상회담' 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이번 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중·러 정상에게 정치적 승리만 안겨주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경고도 매섭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비롯한 미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핵군축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어떠한 실질적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보장을 받고 회담에 응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던 푸틴 대통령은 미·중 정상과 나란히 서는 장면만으로도 국제 무대 복귀와 강대국 지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됐다. 시 주석 역시 홈그라운드인 선전에서 사실상 혈맹 수준의 공조를 이어가는 러시아를 대동해 미국을 상대로 '2대 1'의 유리한 협상 지렛대를 쥘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번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문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민감한 현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회담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끼리 세력권을 나누는 '제2의 얄타회담'으로 비칠 경우 지난 80년간 미국이 구축해 온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반도 안보 역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핵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비켜나 있거나 원론적 수준에 머물 경우, 자칫 미국의 대북 비핵화 원칙이 후퇴하거나 한반도 정세가 강대국 간 대형 거래의 부수적 변수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깊은 불안 요소다.

선전의 담판 테이블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21세기 신냉전의 거센 파고를 잠재울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단순한 이벤트성 악수나 모호한 공동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 위협 감소와 중동 종전이라는 구체적 청구서를 받아내야만 이번 파격 행보가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는 신중론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워싱턴 날씨 (°F)

11월 16일(월)56-37

17일(화)	59-36	20일(금)	66-43
18일(수)	63-37	21일(토)	66-49
19일(목)	66-39	22일(일)	66-48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T.703-449-7629)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독점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화 3
레스턴 싱글홈 셀러 급매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독점 차고 2, 방 5, 화 3½, 워크아웃 부엌
헌던 럭셔리 타운홈 $850,000 독점 차고 3, 방 3, 화 3½

내 집은 지키고, 자녀에겐 유산을
상속·장기요양·자산 보호 세미나
40년 경력 노인법 전문변호사 Evan H. Farr가 한인 동포 여러분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강사:
Evan H. Farr 변호사
• 40년 경력 · 전미 500명뿐인 공인 노인법 전문변호사(CELA)
• Washington Post · Newsweek가 인용한 메디케이드 전문가
• Best Lawyers in America, Super Lawyers, Washingtonian 선정 우수 변호사

세미나 내용
• 상속법원(Probate) 없이 재산을 넘기는 법
• 리빙트러스트만으로는 요양비를 막을 수 없는 이유
•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 받으면서 재산 지키는 법
• 이미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긴급 대처법



한국어 통역 제공
Karen Ahn
• High Calling Financial CEO
• Financial Advisor & Certified Tax Advisor

일시 12월 1일 (화) 낮 12시 - 2시30분
장소 한인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 예약 및 문의: (703) 688-2645
◀ QR code를 스캔하셔서 등록하세요.
선착순 40 명

HIGH CALLING FINANCIAL
주관: High Calling Financial
www.highcallingfinancial.com

장비 2개 바꿨을 뿐인데… 미 전역 관제센터 낡은 시스템 과부하

아칸소·텍사스주 새 네트워크 장비 설치 뒤 데이터 급증… 통신장애 초래
낡은 구리선 대신 광통신망 교체 중 발생…"장비결함 아니면 업체 무능 탓"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여객기 [AFP=연합뉴스]

지난 13일 전역에서 전면적인 항공기 이륙 중단 사태로 이어진 항공관제 통신시스템 장애는 미 남부의 아칸소주와 텍사스주 통신 시설에 설치된 신형 네트워크 장비가 전체 통신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항공당국은 새로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에 결함이 있었거나 관리업체가 장비 설정을 잘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장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이하 L3해리스)가 지난 13일 아칸소주 엘도라도에 있는 연방항공청(FAA) 통신 시설에 새 라우터 장비를 설치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장비가 미 전역의 FAA 통신시스템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다.

라우터는 전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어느 경로로 갈지를 정해 전달하는 장비로, 통신 데이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칸소주 통신 시설 외에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있는 레이더 시설에서도 라우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 두 시설의 라우터에서 나온 데이터가 FAA 전체 통신시스템을 압도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두 라우터는 전체 네트워크에 4~5초마다 1천 건의 연결 신호를 보냈고, 이로 인해 다른 장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날 미 전역의 항로관제센터 22곳 중 17곳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13일 오후 FAA가 전국 단위의 지상정지(ground stop) 명령을 내리는 계기가 됐다.

FAA가 아칸소주와 텍사스주의 라우터를 통신망에서 차단한 뒤에야 항공관제 통신시스템 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로이터 통신도 FAA의 안전 담당 직원 노조와 소식통을 인용해 장비 문제가 13일 업데이트된 라우터 2대로 국한됐다고 전하고, 두 장비 소재지가 아칸소주 및 텍사스주라고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FAA는 구리 통신선 기반의 노후화된 항공관제 통신시스템을 광통신 기반의 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문제된 라우터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업체 주니퍼의 제품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데이터센터 등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에 강점을 가졌으며, 지난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에 인수됐다.

현재 FAA 항공관제 네트워크에는 정상 작동 중인 주니퍼 라우터가 약 60대 설치돼 있다고 WSJ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HPE 대변인은 WSJ에 문제된 주니퍼 장비가 의도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장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AA 관계자들은 문제된 라우터에서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한 기능을 찾아냈고, 문제 발생 이후 FAA 관제 시스템의 모든 주니퍼 라우터에서 끈 상태라고 WSJ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FAA는 장비 결함 또는 관리업체의 잘못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된 라우터가 왜 통제를 벗어나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려 노력 중인 건 업체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 라우터 때문인지 여부"라며 "아직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 생존 원할 뿐 팽창주의자 아냐"

루비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사진) 국무장관은 이란과 달리 북한이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5일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변호사회의 행사에 참석,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그는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북한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팽창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란의) 이 사람들은 팽창주의자이고 혁명가들이다. 그런데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늘 핵무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핵무기를 원한다면서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이미 원자력 에너지를 가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은 이란 핵 보유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으나 북한이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대북관을 드러낸 것이라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하고 있는 미국 최고위 외교·안보 인사다.

쿠바계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을 맹공하는 대북 매파였으나 지금은 이란과 북한을 구분하면서 이란의 위험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이란 전쟁을 했지만 대북외교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젠슨황 명판 떼버린 식당
엔비디아 내부선 '갑질·독설' 폭로

젠슨 황이 불륜 스캔들로 물러나자 엔비디아의 발상지인 미국 식당 데니스가 매장 내 '엔비디아 발상지' 명판을 철거했다가 복원을 예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데니스 매장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한 직후 벽에 걸려 있던 엔비디아 창업 기념 명판과 사진을 철거했다고 미 NBC 방송과 뉴욕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최근 해당 매장 관리자들은 황 전 CEO가 불명예 퇴진하자 벽면의 전시물을 황급히 떼어냈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데니스 본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엔비디아 창업에 도움을 준 데니스에서의 대화를 기리는 기념패를 재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데니스 측은 "젠슨 황은 데니스에서 접시닦이로 일을 시작했고 수년 후 공동창업자들과 부스에 모여 엔비디아 아이디어를 논의했다"며 "기념패는 그 공유된 역사를 기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전 CEO가 과거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고위 임원에게 물병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뉴욕포스트는 "황 전 CEO의 폭언은 내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가 공개적으로 몰락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부 직원은 오히려 놀랐다"고 전했다.













한화, 올해 미국 현지법인에 1.5조 수혈

현지 사업 본격화…미 해군 함정 첫 수주·아칸소 탄약거점 조성 등

한화가 올해 미국 법인에 1조5천억원이 넘는 실탄을 쏟아부으며 현지 방산 시장 공략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첫 수주, 미 육군 K9 자주포 시제품 공급 등 현지 사업이 본격화하자 생산 거점과 투자 재원 확보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가 올해 들어 미국 법인 유상증자 등에 출자했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모두 1조5천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연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총액이 1조원이 넘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에 올해 네 차례에 걸쳐 5천8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900억원, 7월 2천501억원(2건)에 이어 9월 1천6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9월 출자분은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인수하는 데 쓰인다. 미국 내 조선·방산 사업을 한화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 선박 건조 사업자 선정

디펜스USA 아래로 모으려는 재편 작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전략자산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에 2천802억원, 미국 엔진부품 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에 2천20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지주회사 한화오션USA홀딩스에 올해 네 차례 3천2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2월 204억원, 3월 1천645억원에 이어 8월 784억원, 9월 61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이 자금은 한화오션USA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디펜스앤드에너지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한화시스템USA(605억원)와 HS USA홀딩스(1천117억원)에 모두 1천721억원을 출자했다.

이처럼 한화가 미국 법인에 자금을 집중하는 것은 지상·해양 방산에서 잇따르는 현지 수주와 생산 거점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미국에 탄약 관련 법인 2곳(H미사일솔루션즈·한화오드넌스홀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양 방산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억6천900만달러(약 3천600억원) 규모의 미 해군·해병대 중형상륙함(LSM) 건조 계약을 따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남부 해안에서 다연장로켓 '천무'의 해상 사격시험에 나서는 등 해양 방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스페이스X, 사상 첫 우주선 본체 회수

완전재사용 로켓 예고


발사대로 귀환한 스타십 상단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의 상단 선체 회수에 성공했다.

14일 스페이스X의 차세대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 시험비행 중계를 보면 전날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2단 구조 로켓 스타십의 상단부는 만 하루에 가까운 지구 궤도 비행을 마치고 발사대에 안착했다.

해당 선체는 22시간32분여 동안 고도 165마일(약 266㎞)에서 지구를 14바퀴 선회한 뒤 출발지였던 발사 기지로 돌아와 기계식 로봇 팔에 공중 포착됐다. 발사대 인근에 몰린 인파들은 귀환하는 선체가 구름을 뚫고 나타나자 환호했고, 곧이어 안정적으로 발사대에 걸리자 만세를 부르거나 옆 사람과 끌어안는 등 축하했다.

해설자 댄 휴잇은 흥분한 목소리로 "믿어지십니까? 그녀(She)가 돌아왔어요!"라고 외쳤고, 스페이스X는 중계 화면 배경음악으로 록그룹 플레이어(Player)의 노래 '베이비 컴 백'(Baby Come Back)을 틀었다.

스페이스X는 방열판을 포함한 우주선의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는 대기권 내에서 역할을 다하고 분리되는 1단 추진체는 여러 차례 회수했지만,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상단 선체를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로켓 상단부 회수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완전 재사용 로켓의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했다.

다만, 이번 시험비행에서 로켓의 1단 추진체인 '슈퍼 헤비' 부스터는 전날 이륙 10여 분 만에 멕시코만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스페이스X가 원래 목표로 했던 1·2단 동시 회수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케이트 타이스 스페이스X 품질관리 담당 이사는 하강 도중 엔진 연소가 너무 일찍 중단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2023년 스타십의 첫 시험비행 이후 15번째이며, 지구 궤도에 진입한 시험 비행으로는 두 번째다.

미국 '홍역 청정국' 지위 상실

트럼프 임기 급증… 불신 확산해 접종률 ↓

꾸준한 예방 접종으로 오랫동안 홍역 감염 관리에 성공한 미국이 최근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26년만에 '홍역 청정국'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미국의 홍역 퇴치 국가 지위를 최근 박탈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미국 내 홍역 환자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조만간 홍역 청정국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이 지위를 지켜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에만 5천400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연간 홍역 환자 발생 건수는 매년 수십건에 불과했다.

NYT는 미국 내 홍역 환자 급증 시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홍역 백신을 포함해 모든 백신 효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예방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아울러 일부 백신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줄였다.

백신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며 미국 영유아 백신 접종률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6월 기준 유치원생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률은 92.4%로 6년전 95.2%보다 낮다. 미국이 홍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려면 최소 12개월간 홍역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NYT는 그간 여러 국가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일부는 다시 얻었지만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홍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브라질은 지난 2019년 홍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 끝에 2024년에 다시 이를 획득했다.

케데헌, 내년 6월 50개 도시 월드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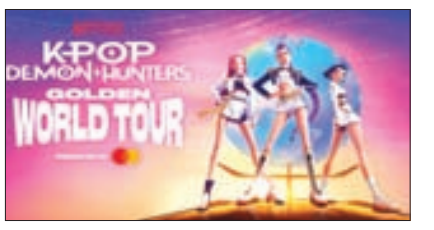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라이브 콘서트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넷플릭스는 내년 6월 5일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월드투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투어는 2년간 북미와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전 세계 50개 도시를 돌며 150회 이상의 대규모 공연을 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넷플릭스는 이날 내년 6~10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진행할 61차례의 공연 일정을 우선 공개했다.

공연은 첨단 연출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다. 라이벌 그룹인 '사자보이즈'와 인기 호랑이 캐릭터 '더피'의 애니메이션 무대도 펼쳐진다. 케데헌은 넷플릭스 누적 조회수 6억7천만 회를 돌파한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 흥행작으로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 그래미상 등을 휩쓸었다.

메타, 폴리마켓·칼시와 경쟁 예고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측시장 앱을 시험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는 정식 출시에 앞서 '테이크스'(Takes)라는 이름의 예측시장 앱을 내부 시험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도그푸딩'(Dogfooding)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내부 시험은 신규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메타가 흔히 거치는 사전 절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앱의 이름이나 기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테이크스에는 현재 '팀 쿡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의 차기 CEO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이에 참여한 메타 직원 대다수는 '반대' 쪽에 베팅했다고 WSJ은 전했다. 테이크스는 기존의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칼시와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과 달리 실제 돈을 베팅하는 대신 '크레드'(Cred)라는 이름의 가상 포인트를 걸게 돼 있다.

메타의 이 같은 예측시장 진출은 마크 저커버그 CEO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저커버그 CEO는 회사에 소규모 팀을 꾸려 예측시장 앱 개발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6월 전한 바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기존의 SNS 이용자를 해당 앱의 초기 이용자로 유입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rt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타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확보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번영의 뿌리"

광복회 워싱턴지회,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광복회 워싱턴지회(회장 문숙)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지난 14일 버지니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워싱턴 지역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 후손들과 광복회 회원, 한인사회 각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간성환·간하현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한·미 양국 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추모 영상 상영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다.

문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서린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뿌리가 선열들의 헌신에 있음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인석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기념사에서 "워싱턴 지역은 과거 선열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쳤던 역사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평가하며 "워싱턴 동포들이 선열들의 독립정신이 깃든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마크 김 KAI 회장이 추모사를 통해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광복회는 한국 역사·문화 보존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이길현 주미대사관 국가보훈부 보훈관, 강임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소장, 폴 마이클 테일러 스미소니언 아시아 문화역사 프로그램 디렉터 등 4명이 선정됐다.

이중 테일러 박사는 "뜻깊은 감사장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미국 주류 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스미소니언 재단의 노력이 한미 동맹과 우호 증진에 밑거름이 돼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최광희 운영위원장의 소개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호명돼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독립정신의 세대 계승을 보여주는 차세대 후손들의 발표와 영상 상영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차세대 순서에서는 네이선 강 군이 '한국으로의 여정: 나의 한국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빛나리·김빛누리 양이 공동 제작한 '우리가 자유한 이유'와 간시현 양이 제작한 '그가 꿈꾸던 나라'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진 추모 공연에서는 김빛누리(첼로)·간하현(클라리넷)의 듀엣 연주와 함께 정수경 원장이 이끄는 디딤새 한국전통예술원이 국가무형유산 승무(이매방류)와 봉산탈춤을 선보이며 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순국선열의 노래'를 제창한 뒤, 홍광수 부회장의 선창으로 진행된 힘찬 만세삼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상태 향군회장 "한미 협력 큰 역할 당부"

미동부지회 노고 격려… 표창 및 감사패 전달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 중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이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 임원 및 주요 관계자들과 뜻깊은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본회 및 해외 지회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위치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은 신 회장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엄숙히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현지 사회에서 한 명 한 명이 민간외교관 그 자체로 활약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의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을 본회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따뜻하게 치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신 회장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엄중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 안보 공조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신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향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모범적인 운영으로 수차례 최우수 및 우수지회로 선정된 저력 있는 미동부지회가 앞으로도 한미 협력의 가교로서 중추적이고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협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신 회장은 이진곤 장학부장, 이종명 여군부회장, 임호순 자문위원, 여운태 고문, 김명호 고문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본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물심양면으로 힘쓴 6·25참전유공자회 장인규 워싱턴지회장, 서울장로교회 한상인 담임목사, 한국전쟁참전기념공원재단 제임스 피셔·랄프 월튼 이사 및 리차드 딘 사무총장, 한국전 참전용사 루디 미킨스 해병대 하사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성인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 성료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강고은)가 지난 7일 비엔나 소재 상담소 컨퍼런스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용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왔다.

이번 교육은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성인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실전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초기·위기 상황 대응법까지 시나리오 기반 실습으로 다뤄졌으며, 총 20명의 참가자가 전원 수료증을 받았다.

주강사로 나선 천신 테일러 박사는 "93세 시니어부터 23세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남성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정신건강의 의미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은 박찬영·이소연 임상박사도 실습을 지원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상담소 김예규 소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조기 개입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강고은 이사장은 "조기 마감될 만큼 한인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해 기쁘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아시안계 미국인 건강 이니셔티브(AAHI) 지원 및 올가을 페어팩스 카운티 지원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양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가정상담소는 향후 청소년·성인·시니어 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전화(703-761-2225) 또는 웹사이트(www.fccgw.org)를 통하면 된다.













"미국, 우크라에 돈바스 양도안 질의"

러-우크라 나토 가입 대가…젤렌스키 "철군, 국민투표 부칠것"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대가로 동부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영토에서 철수할 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안전 보장과 충분한 재건 자금 등을 포함한 안보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면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 문제가 다시 종전 협상의 의제로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도로 어려운 논의"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측의 중재안은 종전 협상의 최고 난제로 꼽히는 영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의 제안이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의 영향력 확대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이번 종전 협상에서 나토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에서 병력과 기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2022년 2월 개전 당시 강경한 입장을 다시 꺼내 들며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러시아와 동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측은 러시아의 나토 철수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에서 진정한 안보란 유럽연합(EU)과 나토를 의미한다"며 "유럽에는 그 외 다른 안보 체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 구조를 바꾸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더 많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네츠크 지역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인도주의 활동 제안은 거부했다. 그는 "현지 민간인들에게는 이미 대피 기회가 주어졌다"며 "푸틴이 바라는 건 우리가 코스티안티니우카를 떠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몽펠리에 시위

프랑스 5주째 주말시위 11만명 참여

포르투갈선 주거난 시위

프랑스에서 14일(현지시간) 물가 급등과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5주 연속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수만 명이 주거난 항의 시위에 나섰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수도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보르도, 낭트,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등 전국 도시에서 학생 단체와 노동조합, 사회단체가 주도한 시위가 열렸다. 내무부는 전국에서 10만6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주 14만6천명보다도 줄어 이제까지 열린 주말 시위 중 가장 작은 규모가 모였다. 학생 단체들은 20만명이 참여한 걸로 집계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국기와 함께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생활비 SOS", "교육 망치고 보건 망치고 문화 망치고", "학생 말을 듣기보단 막기만 한다" 등이 쓰인 팻말을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대형 인형도 시위에 등장했다.

시위대는 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찰 법안에도 항의했다. 고등학생 시위에서 10대 중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 과잉 대응 논란이 벌어졌고 이는 시위 확산의 동력이 됐다.

추진 중인 경찰 법안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일단 정당방위로 전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선 선두 주자인 마린 르펜의 극우당 국민연합(RN)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경찰이 비례적이지 않은 무력 사용을 자동으로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을 옹호하지만, 활동가들은 '살인 면허'라며 반발한다.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과 포르투를 비롯한 30여 개 도시에서 주거난 항의 시위가 벌어져 수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텐트·거리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위자들이 "우리의 주거권을 도둑맞지 않겠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으며 "월세는 낮추고 월급은 올려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포르투갈 정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도 2020년 이후 68% 급등했다.

중화권 일각 "젠슨황 사임…대만계인 점도 영향?"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불륜 논란 이후 퇴진한 배경과 관련, 중화권 일각에서는 그가 백인이 아닌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후시진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 전 CEO의 비극은 미국에 있는 모든 화인(華人·조상이 중국 민족이지만 현지 국적을 취득한 사람) 엘리트에게 경종을 울린다"며 그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교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머스크 CEO는 정치에 관여했고 사생활에 문제 소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는 반면, 황 전 CEO는 중국 정보기관이 매체에 불륜 소식을 흘린 뒤 곧바로 무너졌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근본 원인은 그가 화인이기 때문"이라며 "화인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회사를 장악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을 미국 사회가 매우 믿지 못했고 매장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스파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스파이이고 러 당국이 중요한 약점을 잡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유명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황 전 CEO는 대만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여권 색깔 때문에 그의 외모와 피부색이 바뀌지 않는다"며 '그가 백인이나 흑인이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라는 미국 소셜미디어상의 질문을 인용했다.

이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쳤다고 말한 뒤 "엡스타인 명단에 연루된 이들 중 다수가 아직 무탈하다"고 주장했다.

뉴탄친은 "일각에서는 황 전 CEO에게 적어도 2가지 정치적 원죄가 있다고 본다"며 "첫째는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화인이라는 점, 둘째는 중국 시장과의 완전 단절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로비한 점"이라고 해석했다. 홍콩매체 홍콩01도 황 전 CEO 퇴진의 배경과 관련해 "미국 국적 대만계 엘리트도 '화인이라는 원죄'를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사생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물들이 흔한데 황 전 CEO는 '죽을 죄'가 됐다며, 이는 엔비디아가 너무 성공했고 황 전 CEO가 화인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국가안보전략 결정권자들이 보기에 대만계 '반도체 황제'가 미국과 세계 AI의 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중국공산당 저장성위원회 선전부는 황 전 CEO 관련 논란 배경에는 AI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있다며 황 CEO의 외모 때문에 간첩 의혹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유엔 'AI 무기 레드라인' 구상 뒷북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살상무기가 전 세계 전장을 누비고 이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유엔이 규제 논의에 들어간다.

15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이른바 '킬러 로봇'이라 불리는 자율살상무기 규제·금지책을 논의한다. 자율살상무기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 선정,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말한다.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쓰는 대인지뢰도 일종의 자율살상무기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무기체계에 AI가 탑재되면서 활용 범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AI 탑재 드론이 대표적이다.

자율살상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당국들은 이제 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미국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을 강조한다.

프랑스는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율살상무기를 금지하고 부분적 자율살상무기 시스템만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자율살상무기 규제 방안을 논의해도 문제의 일부분만을 다루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자율무기의 확산 속도가 논의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AI의 표적 추천과 같은 기능은 논의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이민정책 특별 간담회

동포사회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이민정책 간담회에
단체장 및 동포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0일 (금) 오후 2시
■ 장소: 코리안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 참가신청: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접수: 워싱턴 총영사관 202-939-5653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703-338-3590

주요 프로그램
■ 제1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이민정책 전망 및 분석
■ 제2부: 대한민국 국적법
(선천적 복수 국적, 국적 이탈, 상실 및 회복등)
동포사회의 안전망을 위한 대응방안
(사건사고 사례 중심)
■ 제3부: 질의응답(Q&A)

주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주관: 버지니아한인회 KOREAN AMERICAN SOCIETY OF VIRGINIA

2027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6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 예약

무료 상담

703-973-5900, 410-216-1553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근무시간 월-금 8:00-5:00
703-642-0305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근무시간 월-금 8:00-5:00
703-642-0818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근무시간 월-금 8:00-5:00
410-216-1553





오 향 제
703-973-5900

2027년도에는 갖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Part C)와 약보험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꼭 비교를 해보세요!



Jenny Oh
703-642-0305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28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 2027년도 달력이 나왔으니 편하신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Fairfax (703) 642-0305 | Richmond (804) 767-3714 | Ellicott City (410) 216-1553 |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항공 전면 중단사태 여파 계속…14일에도 4천편 넘게 결항

FAA "15일까지 정상화"…항공기·승무원 재배치로 더 걸릴 수도
공항 노숙·렌터카 품귀…국제선·대학 미식축구 등 경기도 영향


13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 [AP=연합뉴스]

지난 13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공 이륙 중단의 여파가 14일에도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금요일 오후 항공기 이륙이 4시간 30분가량 전면 중단되면서 항공사의 항공기 및 승무원 배치 일정이 꼬이는 등 연쇄적인 차질이 토요일인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계속되고,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5분 기준 미국 내 항공기 약 4천100편이 결항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 내 항공기 4천편 이상이 취소되고 약 3천편이 지연되는 등 7천편 이상이 차질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은 이날 운항 스케줄의 약 20%를 취소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취소율은 40%에 달했다.

전날에도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엄' 집계 기준 전체 31%가 넘는 8천2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이날 예정된 항공편 약 4만1천편 중 4천~5천편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베드퍼드 청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스케줄이 15일 업무 종료 시점까지 완전히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항공기와 승무원들의 배치가 어긋나면서 실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승무원들은 안전 규정에 따라 최대 근무 시간과 의무 휴식 시간을 적용받는다. 앞선 지연으로 근무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운항에 투입될 수 없고, 대체 승무원은 다른 공항에 있거나 이미 운항 일정이 잡혀 있을 수 있어 후속 항공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 항공사들은 항공기·승무원 재배치 과정에서 지연 및 결항이 계속될 수 있다고 승객들에게 안내했다. 일부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미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 주요 공항에서도 미국행 항공편의 지연과 발생했고, 화물 항공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항공 컨설턴트 앤드루 찰턴은 13일 미국 내 하루 평균 4만5천편 운항 중 약 4분의 1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AP 통신에 "항공기는 단순히 A에서 B로 갔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C와 E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빙빙 돈다"며 "장거리 비행이나 대서양 또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국제선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 악화한다"고 설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JFK·라과디아 공항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등 주요 허브 공항에는 전날 밤부터 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운 승객들로 가득했다.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딸과 함께 4시간 이상 대기했던 에밀리 브라운씨는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고 AP에 말했다. 친구를 보러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로 가려 했던 브라운씨의 딸은 결국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한다.

브라운씨는 "14살 딸이 용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샀고, 여행 계획도 전부 직접 세웠다"며 "이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체 교통편을 찾으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공항의 렌터카 업체에도 혼잡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여 차량은 동이 났고, 일부 업체는 편도 대여를 제한하기도 했다.

미 대학 미식축구 경기도 영향을 받았다. 주말 경기를 앞둔 대학들이 전세기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거리 버스를 동원해 수백㎞를 이동해야 했다.

오번대와 퍼듀대 등은 각각 미시시피주와 아이오와주로 버스로 이동했다. 유타주립대와 애리조나대의 경기는 3시간 미뤄졌고, 미시시피대 미식축구팀 올레 미스는 오클라호마주 노먼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찾지 못해 결국 이날 오클라호마대와의 경기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미국에서 전국 단위의 운항 중단은 2023년 1월 FAA 전산 시스템 장애 탓에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날 사태보다 짧았다. 미 당국은 이번 장애가 항공교통관제 통신 장비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태가 "최근 몇 달간 여러 차례 차질을 빚어온 낡은 항공교통관제 인프라가 가진 고질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6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규모 여행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항공당국 "항공운항 15일 완전 정상화 예상"

"테러·AI 아닌 관제 통신선 광섬유선 교체 중 오류"


항공교통 중단사태 기자회견하는 미국 연방항공청장(왼쪽)과 교통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항공당국은 14일 항공관제 통신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이날도 지속되는 가운데 15일에는 항공 교통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예정된 항공편 4만1천편 가운데 4천편에서 5천편 정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도 지연과 결항이 발생하겠지만 내일(15일)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드퍼드 청장은 또 "항공사들은 15일 영업 종료 시점까지 항공 스케줄을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항공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상당한 양의 복구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드퍼드 청장은 전날 4시간30분 간의 전국단위 지상 중지(ground stop)를 발령한 이유에 대해 미 전역 22개 항로 관제 센터 가운데 최대 17곳에서 수신되는 특정 주파수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겼다가 연결되는 현상이 무작위로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테러 등 악의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인공지능(AI)도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드퍼드 청장은 "이번 문제는 장비 결함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현재 이 결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함께 회견에 참석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전날 항공편 전면 중단 사태를 야기한 장비 결함에 대해 FAA 계약업체인 'L3 해리스'가 항공관제 네트워크 케이블을 기존 구리에서 광섬유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작됐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려 노력 중인 건 업체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 라우터 때문인지 여부"라며 "아직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공운항 서서히 정상화…일부 지연·결항 지속"

미 교통부 장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의 항공편 안내 전광판

미국 전역에서 13일 항공관제 통신 시스템 장애로 4시간 30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정상화됐지만, 14일에도 여전히 항공편 지연 및 결항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아침 항공운항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며 항공기들이 정상 이륙하고 있고 비행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항공사들이 항공편 일정을 재조정하고 항공기 및 승무원을 재배치함에 따라 일부 지연 및 결항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아직 전면 중단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피 장관은 그러면서 항공편 현황을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고 공항 운영 여부는 교통부의 '국가 공역 시스템 현황'(National Airspace System Status) 사이트를 참조하라고 권고했다. 더피 장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연방항공청(FAA)은 미 동부시간 전날 오후 3시53분 관제 통신 문제를 이유로 미 전역 공항에 전국 단위 지상 중지(ground stop)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처는 4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15분 해제됐다.

이로 인해 14일 미국 내 3천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여행객들이 전국 공항에서 더 긴 대기 줄을 견디며 여행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전,
먼저 상담하세요!

주택 · 상가 · 렌탈 · 건물

주택부터 상가(비즈니스)까지,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보험조정사가
함께 찾아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갑작스러운 피해로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 보험사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
✓ 어떤 항목까지 보상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 보험사와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
✓ 상가 피해로 영업 차질이나 손실이 발생한 사업주
✓ 기존 클레임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원하시는 분

대표 사고 유형
• 누수·물 피해 • 동파·배관 파손
• 화재·연기 피해 • 도난·파손
• 폭풍·나무 전도 • 냉장·냉동 장비 고장
• 기계·장비 고장 (Equipment Breakdown)
• 영업 중단 손실 (Business Interruption)

무료 상담 제공
• Licensed Public Adjuster
• 주택 · 상가 · 비즈니스 보험 클레임 전문
• MD · VA · DC · PA · NJ · TN 라이선스 보유



보험사는 보험사의 기준으로 클레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바른길 보험조정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합니다.

바른길 보험조정사 Right Path Solutions, LLC
☎ 240-659-9286
Publicadjuster.kim@gmail.com https://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대표 김민영

JUNG KWAN JANG 정관장



과학이 증명한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 11월 9일~29일 (21일간)

최대 25% 할인

에브리타임, 홍삼정, 달임액, 천녹

1개 구매 시 15% 할인 | 2개 구매 시 25% 할인

단 7일간, Special Event

석류홍삼 30포, 화장품 5종
아답토 콜라겐 2종, GLPro 8팩

50% 할인 |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FREE 전국 무료 배송 가능

애난데일 지점
703.642.1304
7326 Little River TPKE., #D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703.815.3434
13822 Braddock Road, #C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410.480.2304
9380 Baltimore Nat'l Pike, #109
Ellicott City, MD 2104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강경파 겨냥 "개혁방해" 직설

"부화뇌동 하거나 개혁 방해하는 것 용납 어려워…국민 먼저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생 개혁, 부동산·세제·재정개혁,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검찰·경찰개혁, 국방개혁 등의 개혁 과제를 거론하며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 반발 내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여권 내 강경파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X에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격려하는 글에 함께 적은 내용이지만 당내 특정 세력을 향한 발언이 아니겠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고 발언한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의 녹취가 지난 12일 보도되고, 이에 김민석 대표가 감찰 조사를 지시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최근 당내 갈등이 증폭한 상태다.

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 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찰 및 부동산 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

"국가시험 AI활용 의심 전수조사"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수능 집중점검"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I 부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부정 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 초선모임 '최민희 논란'에 사안 엄중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15일 최민희(사진) 최고위원 문제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않았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엄중하며 입장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더민초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최고위원이)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최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에 대한 중대한 실언이고 당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이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놓고 거짓으로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한 데다가 사과보다는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이 알려지자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날 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징계 수순으로 여겨질 이첩 지시에 친청(친정청래)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공에 직면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맞불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김석영 선생 등 206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는 제87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궁성(宮城) 폭파를 시도한 재일 노동자 고(故) 김석영 선생(애국장) 등 20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석영 선생은 194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건달회(建達會)를 결성하고, 일본 천황이 거주하던 궁성, 내무성 일본 본토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려 시도했다. 이후 계획이 사전 발각돼 일본 경찰(경시청)에 체포된 후 1944년 1월 동경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순국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어 포상함으로써 희생정신이 미래 세대를 비롯한 국민 모두 기억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I부정 세무사 수석 합격자에

수험생들 "불안·허탈감" 토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자 다른 수험생의 불안감과 허탈함이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사진)는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수서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안내실)에 접수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20대 권모씨는 "상대평가였고 저 사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허무하다"며 "앞으로 다시 시험 칠 의욕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험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건으로 허탈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2년 동안 공부해서 이번에 처음 세무사 1차 합격했는데 누군 AI로 백점 맞으니 허탈하다", "산인공(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부정행위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게 참 허무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시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허탈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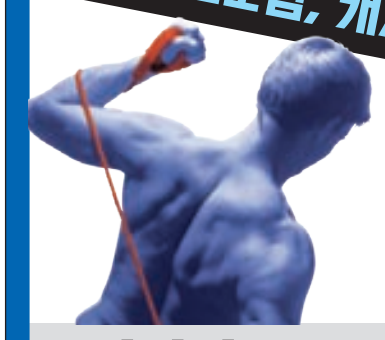
법무사 시험 준비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차 시험까지 통과한 법무사들 대부분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공정하게 경쟁했겠지만 '미꾸라지'가 없을 거라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전문직 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내 젊음과 열정을 불태워 취득한 삶의 전부와도 같은 면허장이 누군가에겐 공짜였다",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 이름값 낮아질까 봐 짜증 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메디케어
여행자 보험, 메디케이드
각종 의료보험, 캐시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LAc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틀리 지역]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Happy thanks giving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센터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 Center/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센터 / 뉴폿뉴스 I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 Center/ Newport News
13193 Warwick Blvd.
Newport News, VA 23602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센터 / 뉴폿뉴스 II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 Center/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한국 IP 대역 유망"…북한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렸다

해커 대화록서 한국 직접 지목…사이퍼마 보고서 공개
정부·금융·통신 등 7대 산업군 겨냥…PHP 취약점 악용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한국의 정부·금융·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글로벌 보안기업의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라자루스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전 탈취와 정부·기업의 기밀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북한 연계 해킹조직으로, 이번에는 웹 서버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커들이 폐쇄형 온라인 채널에서 한국의 인터넷주소(IP) 대역을 유망한 공격 대상으로 직접 지목한 가운데 실제 공격 표적 목록에서도 국내 서버와 도메인 30곳이 확인됐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사이퍼마는 이달 초 발간한 'PHP2Shell 취약점 악용 실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다크웹 내 해커 대화록을 보면 이들의 구체적인 공격 의도와 표적이 드러난다.

해커들은 지난달 28일 공격 대상을 물색하고 스캔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의 일부 IP 대역들이 꽤 유망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 무작위 해킹이 아니라 명확한 '금융 탈취와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퍼마는 해커들이 타깃 국가의 정부 기관, 은행과 금융기관, 통신, 핵심 인프라, 물류 및 항공, 제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주요 7대 산업군에서 사용 중인 PHP 기반 웹 서버를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고 침투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커들은 해당 대화 직후 유망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IP 대역에 스캔 노드를 추가 투입해 범행을 본격화했다.

사이퍼마가 확보한 해커들의 원본 표적 리스트(10개국 216개 노출 서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소재 서버와 도메인은 총 30곳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미국 등에 이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격자들은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구동되는 PHP 코어의 원격 코드 실행(RCE) 취약점(CVE-2026-109618, CVE-2026-109619)을 악용했다.

사이퍼마 분석 결과, 북한 운영자들은 사전에 감염시킨 21개의 스캔 노드 IP를 거점으로 삼아 표적 서버에 웹셸(악성 스크립트) 배포를 시도했다.

이후 관리자 자격 증명을 탈취하고 내부망 수평 이동을 진행해 전체 타깃을 581개 호스트로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퍼마는 피해 기관의 2차 침해를 막기 위해 보고서에 한국 내 표적 30곳의 IP 주소 마지막 네 번째 자리를 마스킹 처리해 공개했다. 사이퍼마는 이번 공격에 대해 PHP 런타임 자체의 취약점이라고 명시했다.

사이퍼마 측은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며 "시스템 관리자가 PHP 코어 자체를 패치한 뒤 모든 웹 워커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시작해야만 웹셸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AI영상으로 되살아난 박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문화행사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문화행사'가 14일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경북도·구미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한 행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애와 업적,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을 되돌아보고 새마을정신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숭모제와 기념식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연 숭모 제례에서는 헌관들이 분향하고 헌작을 올렸다.

또 행사장에서는 관람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과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민 공모에서 당선된 입상작들도 선보였다.

숭모 제례에 이어 광평동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는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일반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축하공연 등 순서로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축하공연에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상으로 구현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덕담을 건네자 환호성을 쏟아냈다.

영상 속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유의 목소리와 화법으로 인사말을 건네며 "우리들 후손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냐고 물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하자"고 강조했다.

유족대표로 행사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나라로 성장했으나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14일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9돌 문화행사에서 무대에 기념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는 수치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국민들이 자기 삶이 나아졌다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힘든 건 등 뒤서 날아오는 화살"

이 대통령, 천준호 대표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향해 14일 "고생 많으셨다"며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천 의원이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영상을 공유하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 검찰의 표적이 돼 소환장까지 받으셨다"고 썼다.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이 대통령

이어 "지난 수년간 흉기 살해 테러,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 전대미문의 고강도 정치 탄압이라는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올 동안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언급도 남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천 의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던 당시를 설명하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국힘 "특검 의결시 국무위원들도 감옥갈 것"…부산 규탄 집회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일주일 전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의 시동을 건 데 이어 내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일반 지지자까지 포함해 1만명이 참석했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부산 경찰은 1천여명 참석으로 잠정 집계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재판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380억 혈세 특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임시수도이자 법치수호의 전시사령탑"이라면서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라고 선창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위헌·위법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일 뿐"이라면서 "특히 이번 특검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했다.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비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엘리콧시티 · 락빌 2개 지점

편한나라 척추신경전문병원

편한위치 · 편한치료 · 편한척추

www.carefreelandusa.com



Dr. 조규창
- 상문고 졸업
- 대전보건대 졸업
- 전 Occupational Therapist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Cerified in Activator Method Technique
- Certified in Active Release Technique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
- Maryand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 (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 전액 장학생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Certified in Cox Technique, Low Back Rain
- Certified in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aryland
- Completion of Asian Body work Therapy Program

주요 치료 영역



자동차 사고 후유증	척추 디스크 통증	두통, 목, 허리 통증	손, 발 통증 및 저림	어깨 결림 및 통증	만성 근육통
목·어깨·등 통증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직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만성 두통 목/허리 통증 신경 압박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손/발 저림 관절 통증	오십견 회전근개 통증 어깨 결림	근육 피로 만성 통증 근육 불균형

취급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치료 항목
-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 통증 치료 (Dry Needling)
- ✓ 마사지 치료 (LMT 라이센스 소지자)
- ✓ 체외충격파 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 ✓ 신체균형강화 장치기법 (Body Balance Enhancement Device)
-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교통사고 후유증치료

빠른 치료가 후유증을 막고, 빠른 회복을 만듭니다!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 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611 Rockville Pike #150 Rockville, MD 20852

www.carefreelandusa.com

'이 대통령·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 설전

한동훈 "두 재판 같다는 말맞아"…최민희 "거짓말, 조희대 공작재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4일 최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발언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최 의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녹취가 언론에 보도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상태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 말이 맞다"며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최민희

한 의원은 "두 사건이 다른 점은 윤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거짓말 마라"며 "재판부는 두 재판을 동일시할지 모르나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빼도 박도 못함), 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에 대해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의 본인 녹음에서 한 말과 전혀 다르다"며 "최 의원이 오랜만에 맞는 말 했다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정치인들에게 욕먹으니 주워 담고 싶은 애타는 마음 알겠는데, 이미 '최민희 음성녹음'까지 방송에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막 우기면 좀 추하다"고 재반박했다. 한 의원은 "누구든 우기지만 말고 반박해보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특검 '폭풍전야'

파견 검사보다 '수사대상' 더 많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실제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과거 기소된 사건이 조작됐는지 특검이 수사하는 만큼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최대 20명보다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수가 훨씬 더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윤석열정부 또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에서 행한 사실상 모든 정치적 성향의 수사를 겨냥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6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들 대부분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7·연수원 27기) 전 총장이다. 이 전 총장은 2017년 특별수사본부에서 부장검사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고 대기업이 정권에 건넨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등 검찰 내 특수통 계보를 잇는 검사다.

이원석 전 총장은 2023년 2월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의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은 전국 최대 특수수사 역량을 갖춘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도청 소재지가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낸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이창수, 수원지검 홍승욱·신봉수·김유철 등으로, 모두 특수부 또는 공안부 엘리트 검사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대장동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출 청소년만 노리는 '헬퍼'

성매매·성착취 늪에 빠트려

SNS에 숙식제공한다 접근…가스라이팅 후 조건만남 종용
성병·임신에도 신고 저조…"수사 초기 전문기관 연계해야"

"너를 사랑하는데 생활비가 늘어서 힘들어. 조건만남이라도 해볼래?"

지난해 18살이던 A양은 가출한 뒤 만난 '헬퍼'(조력자)의 집에서 지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자신을 '헬퍼'로 지칭하며 잘 곳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때로는 청소년들이 먼저 '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다. 처음엔 호의를 베푸는 척하던 헬퍼는 같이 사니 생활비가 많이 든다며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번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수개월이 지나며 A양은 임신했고 중절 비용도 성매매를 통해 마련해야 했다. A양은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뭐라 하겠느냐'는 헬퍼의 말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다.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에 걸려든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 숙박 숙소에서 15세 B양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와 성착취 굴레에 빠지는 학교 밖 10대들의 현실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헬퍼 문화'를 성매매·성착취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성매매·성착취에 내몰리다 에이즈·매독 등 성병에 걸리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2차 피해의 굴레에 빠진다. 어린 나이라 정확한 피임 방법을 모르거나, 피임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성매수자의 꼬드김에서 비롯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신고는 저조하다. 지속적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꺼린다.

이는 성 착취 범죄가 1~2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헬퍼 관련 SNS 게시물 차단과 같은 기본적 대책이 시급한 것은 물론 '골든 타임'인 수사 초기에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현정 팀장은 "현행법상 경찰은 수사가 끝나고 피해자를 지원센터로 연계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로 인지해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창에 "좋아했어"…수십차례 연락 20대 벌금형

초등학교 졸업 이후 교류가 없던 동창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경찰의 경고에도 수십차례 연락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19일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22)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 번 먹자" 등의 내용으로 14차례에 걸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해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됐다. 이 일로 경찰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A씨는 B씨 신고 약 25분 만에 재차 연락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DM을 보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카프아저씨 덕에…즐거운 마음"

오세훈, 남대문시장 달빛미식회 콘텐츠 살펴


시민들께 제공할 음식을 담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저녁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서울 달빛미식회'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달빛미식회는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돼 관광객들이 밤에도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표 프로그램 '달빛주막'에서는 남대문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닭칼국수를 활용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시장 특유의 생활 잡화와 이색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달빛점방'과 남대문시장상인회가 참여하는 벼룩시장 '달빛마켓'도 열린다.

오 시장은 이날 전통 주막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춰 입고 '달빛주막 일일 셰프'로 활약했다.

그는 신용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남준영 셰프,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출연한 조서형 셰프와 함께 닭칼국수와 수육을 서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함께 일대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닭칼국수 등 시장 대표 먹거리를 시식하며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 현황을 살폈다. 시는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 중심가 약 135m 구간에 한옥 처마를 본뜬 '디자인 아케이드'를 조성했다.

시장 위로 지붕이 덮인 덕에 가을비가 내리는 이날에도 관광객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달빛미식회 개장행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조성 이후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인들이 늘고,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도 많아지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요즘에는 '스카프 아저씨'까지 뜬 덕에 많은 분이 남대문시장을 찾아주시는 것을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750만 재외동포 역사 소멸 위기"

동포언론 '기록 전산화' 촉구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와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로창현)는 파편화되고 훼손되어가는 재외동포 역사 기록의 영구 보존을 위해 '재외동포 역사 기록 전산화(DB 구축)' 구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750만 재외동포의 소중한 이민 역사와 삶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이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 관리 부족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다.

양 단체에 따르면 세계 각지 한인 이민사 현장에서 수집된 문서, 사진, 1세대 동포들의 구술 기록, 한인 신문 및 단체 자료 등 소중한 사료들이 전용 보존 시설이나 디지털 시스템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장인·당사자의 사후 멸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초기 이민사부터 각국 한인 사회의 형성 및 성장 과정은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동포 사회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체계적인 수집과 전산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캠페인을 통해 ▲ 재외동포 역사 기록물의 전수 조사 및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정부 차원의 국가적 기록 관리 전담 시스템 마련 ▲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750만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적 입법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 참여 운동을 전 세계 한인 매체 및 동포 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명곤 회장은 "지금이 동포 역사를 골든타임 내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750만 재외동포의 역사는 곧 한민족 역사의 외연이자 미래 자산인 만큼, 이번 국민청원에 전 세계 한인 사회와 고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차세대 동포 지원 방안 논의

24일 국회서 포럼



국내 체류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세계한인네트워크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김건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차세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 시대에 고국으로 돌아와 활동하려는 차세대 동포들이 겪는 사회적·제도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 겸 정치평론가와 김봉섭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국내 체류 차세대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법과 제도·사회적 지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경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 변호사, 박엘레나 고려인 글로벌네트워크 이사, 정성희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곽삼주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이 참여한다.

세계한인네트워크는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유대 강화를 위해 2009년 김영근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2011년 첫 정책포럼을 개최한 이후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뒤 차세대 동포의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세계한인네트워크 측은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세계 각지의 한인들과 연대해 모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이 후원한다.

뉴욕 BDNY 첫 한국관…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



'BDNY 2026' 현장 찾은 주요 인사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총회장 황병구) 한국지회는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DNY(Boutique Design New York) 2026'에서 첫 한국관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미주한상총연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6년도 전략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여해 방향제, 호텔 편의용품, 인테리어 소품, 테이블웨어, 타월, 침구류 등 호스피탈리티(호텔·숙박·외식) 산업 맞춤형 제품을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BDNY는 매년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1만6천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와 7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미국 대표 상업공간 인테리어·디자인 전문 전시회다. 특히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와 미주한상총연 소속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문조)가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 70명의 바이어를 별도로 섭외했다. 초청된 바이어들과 전시장을 찾은 호텔·리조트 구매 담당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은 한국관 부스를 찾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전시 기간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7명도 현장을 찾아 참가 기업들의 전시 운영 상황과 상담 현황을 살피고, 수출컨소시엄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미주한상총연의 정승화 수석부회장과 양경호 글로벌사업본부장, 이명석 회장, 문조 회장 등 뉴욕 동포사회 경제인들도 현장에서 한국 참가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했다. 문조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희씨, 한인 첫 아시안·호주 리더십 수상



호주에서 공연예술 교육 발전과 한인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온 이경희(**사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코윈) 초대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2026 아시안-오스트레일리안 리더십 어워즈'(교육 부문)를 수상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교육 분야의 리더십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13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이 전 회장을 교육 부문 수상자로 소개했다. 그는 호주 공연예술 그래머스쿨(Australian Performing Arts Grammar School)의 설립자이자 총괄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이 상은 호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시아계 인사들의 성취와 리더십을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멜버른대 아시아링크와 존슨파트너스가 주최한 올해 시상식은 아시아계 인사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이른바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을 극복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올해 종합 수상자로는 일본 출신 발레 안무가 유이코 마스카와가 선정됐다.



'2026 충주 문화·산업탐방' 참가자들 [공명국제청년협회 제공]

한국·외국인 청년들, K-헬스케어 탐방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청년들이 충북 충주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현장을 찾아 진로와 지역 정착 가능성을 살폈다.

공명국제청년협회는 지난 7일 충주시 일대에서 내·외국인 청년 약 90명을 대상으로 '2026 충주 문화·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청년을 연결해 국제 교류와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민간 청년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행사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앵커사업단과 국제학생지원실이 주최·주관하고 협회가 협력했다. 홍익대·고려대 세종캠퍼스 재학생과 유학생, 이주민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에이치엘사이언스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HL이노베이션파크) 등을 견학했다. 현장에서는 이해연 에이치엘사이언스 회장이 생산 라인을 안내하며 청년들의 진로와 인턴십, 취업 연계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종래 에이치엘사이언스 중앙연구소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와 기술혁신'을, 김명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장이 '지역기업의 인재 수요와 글로벌 청년의 취업 기회'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오후에는 충주박물관과 중앙탑공원 등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봤다.

모든 부동산 매물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매매 · 임대 · 리스팅 등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집 수리해서 팔아드립니다!
집이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리부터 판매까지 믿고 맡겨주십시오.
▪ 필요한 수리 · 보수부터
▪ 정리 및 준비
▪ 사진 · 마케팅
▪ 매물 등록 및 판매까지
낡고 오래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 어떤 집 상태든 OK · 어떤 지역이든 OK
✓ 주택 · 콘도 · 타운하우스 등 모든 매물 상담 가능
✓ 빠른 매물 등록 및 적극적인 마케팅
✓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바이어 환영 매물이 10채든 100채든, 고객님이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키리 부동산
Amplus Realty LLC info@amplusrealtyllc.com
전화 문자 703-231-5572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 ·챕터 11 ·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간들

로마에서 남대문으로, 스카프에 울고웃는 세상

스카프 하면 떠오르는 이는 '영원한 요정' 오드리 헵번일 것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1953)에서 앤 공주를 연기한 헵번은 흰 블라우스에 작은 스카프를 목에 매고 미국인 기자 역의 그레고리 펙과 로마 거리를 누빈다. 그는 머리를 감싸 턱 밑에서 묶고 짙은 선글라스를 곁들인 스타일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헵번 룩'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차림이지만, 유년 시절 발레를 했던 그는 긴 목과 유난히 도드라진 쇄골을 콤플렉스로 여겼다고 한다. 결점을 가리던 스카프가 불멸의 시그니처 룩이 된 셈이다.

스카프는 우아한 기록만 남기지 않았다. 현대무용의 선구자 이사도라 덩컨의 죽음에도 스카프가 등장한다. 코르셋과 토슈즈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무대에 올라 무용의 정형을 깬 그는 1927년 프랑스 니스에서 스카프 한 장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오픈카를 타고 출발하던 중 목에 두른 긴 실크 스카프가 뒷바퀴에 감기며 목을 조른 것이다.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기를 거부했던 자유로운 영혼이 정작 자신이 즐겨 두르던 천 한 장에 묶여 생을 마감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스카프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틴어로 땀을 뜻하는 '수도르(sudor)'에서 유래한 리넨 천 '수다리움(sudarium)'이 시초로



꼽힌다. 목에 두르거나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실용적인 생활용품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보온과 장식 등 용도가 다양해지고 소재도 모직과 면, 실크로 확대됐다.

한반도에는 개항 이후 서양 복식과 함께 전래됐다. 1920~30년대 모던걸과 기생들이 멋내기용으로 스카프를 즐겨 두르면서 서양에서 건너온 천 조각은 한국 근대 여성들의 감각을 드러내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스카프는 애절한 사랑의 노래로도 각인돼 있다. 1975년 가수 윤항기가 발표한 히트곡 〈장미빛 스카프〉다. "내가 왜 이럴까, 스카프만 보면은, 이 고통 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노랫말은 윤항기 자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교제를 반대한 부모에게 머리카락을 잘린 애인이 이를 감추려고 장밋빛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난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곡이다.

윤항기는 "아내의 애처로운 스카프 차림을 보고 단숨에 써 내려간 노래였는데, 발표 직후 전국의 아가씨들이 너도나도 똑같은 스카프를 매고 다닐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회고했다. 1961년 한명숙이 부른 〈노란 샤쓰의 사나이〉 덕분에 셔츠 하면 노란색이 떠오르듯, 〈장미빛 스카프〉의 대히트 이후 스카프 하면 붉은색이 먼저 떠오르게 됐다. 요즘 남대문시장이 '스카프 아저씨'의 구수한 입담 덕분에 연일 인파로 들썩인다. 여섯 장에 1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도 가격이지만, "적당히 사, 사 가도 집에 가면 안 써"라고 내뱉는 찰진 농담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할리우드 배우의 이름을 딴 '스카프리오'라는 별명을 얻은 데 이어 딸 둘을 둔 40대 가장의 인생사까지 조명되며 여느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드리 헵번의 우아함도, 윤항기 노래의 애절함도 아닌 "사지 말라"는 투박한 타박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구름처럼 몰려드니 기존의 흥행 공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도 화려한 은막과 무대가 아닌 낡은 전통시장 골목에서. 세상일은 참 알다가도 모른다는데 이번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김재현

율곡로

보통사람들 울린 13년만의 역주행

히트곡을 단 하나라도 가져 보는 게 소원이었던 아이돌 걸그룹이 있었다. 제2세대에서 3세대 아이돌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2013년 데뷔한 이 그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다 2년 뒤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2018년 해체했다. 가창력과 춤 실력에 비주얼까지 삼박자를 갖추고 언제나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팀이었는데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갔다. 정산을 통한 소득은 '0원'이었고 해체할 땐 각자 빚만 1억원씩 남았다고 한다.

스타가 되고자 청춘을 불살랐던 이 청년들의 소중한 꿈은 그렇게 꽃을 피우지 못했다. 간판을 내린 이 4인조 걸그룹의 이름은 '베스티'. 멤버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리더 혜연은 트로트 가수와 공중파 지역소식 프로그램 리포터로 변신했다. 메인 보컬 유지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았고, 아역 배우 출신 해령은 연기자로 복귀했다. 메인 댄서 다혜는 솔로 가수,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이들의 가슴 속엔 못 이룬 꿈에 대한 미련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 못 했던 기적이 일어났다. 무려 13년 전 발표한 노래 '연애의 조건'이 고속 역주



행을 거듭하며 최근 국내외 차트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국내 차트에서 50위 안에조차 들지 못했던 베스티의 노래가 데뷔한 지 13년 만에 '톱10'에 진입했다. 게다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각국 차트에선 1~2위를 다툴 만큼 이상 열풍이 거세다. 변화가 빠른 K-팝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현상이다.

이전까지 아이돌 역주행의 아이콘은 해체를 준비하던 중 4년 전 노래 '롤린'이 갑자기 뜨며 성공 신화를 썼던 브레이브걸스(현 브브걸)였다. 4년 만의 역주행도 화제였는데, 노래가 나온 지 13년 만에 인기를 얻은 건 신기하다는 표현도 모자란다. 심지어 브레이브걸스는 당시 현역이었지만, 베스티는 오래전 해체한 옛날 가수란 점도 다르다. '연애의 조건' 역주행이 다른 걸그룹 영상에 이 노래를 덧입힌 '숏폼'이 반응을 얻자 다른 가수들의 챌린지로 번지며 시작됐다는 점도 특이하다.

각자 다른 소속사에서 다른 일을 하던 멤버들이 초고속으로 재결합을 발표한 것도 놀라웠다. 현실적으로 재결합이 쉽지 않았는데도 일정을 어렵게 조율해 8년 만의 재결합 발표, 새 안무 영상 공개, 지상파 음악 순위 방송 출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사실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에서 베스티의 부활이 단순히 아이돌의 복귀나 성공담으로만 소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취업시장 문턱이 높아지는 요즘,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는 지금, 베스티의 극적인 환생은 '인간 승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룹 전체뿐 아니라 각 멤버의 서사들이 그렇다.

소속된 그룹이 해체됐을 때 느꼈던 절망감, 꿈이 무너진 좌절감, 어두운 터널을 걷는 듯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이 젊은이들은 묵묵히 이겨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해도 못 가졌던 히트곡을 들고 돌아왔다.

무명 13년을 지나서야 불기 시작한 베스티 바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이승우

이런말저런글

법하다 성하다 양하다, 앞말에 붙여볼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말은 옳았던 걸까. 속담은 과연 조상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 맞나. '될성부르다'는 한 단어다. '잘될 가망이 있어 보이다'란 뜻이다. 의미가 그러니 사람에게만 써야 한단 법은 없다. 〈별로 될성부른 일도 아냐. 이 친구가 글쎄 우리 공장을 재건해 보겠다는 거야.〉(박완서/오만과 몽상) 같은 용례가 그 증거다. '이 친구'는 떡잎부터 될성불렀을까 아닐까.

애초 '의존명사 + 하다 또는 싶다' 꼴로 된 말이 있다. '될성부르다'도 '될 + 성(의존명사) + 하다/싶다'에서 출발한 말 아닌가. '성하다/성싶다/성부르다'는 매일반이다. '내가 굴복할성싶으냐'는 '내가 굴복할성하냐'나 '내가 굴복할성부르냐'로 바꾸어 써도 된다. 알아두면 좋은 것은 '의존명사 + 하다 또는 싶다' 꼴은 '될성부르다'처럼 꼭 한 단어가 아니어도 붙여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앞말이 합성 용언(잊어버릴 성싶다 O, 잊어버릴성싶다 X)이 아닐 때다. 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은(갈듯하다 O, 갈듯도하다 X, 갈 듯도 하다 O) 경우다.

가나다순으로 그 계열 말을 정리한 책(※ 이하 참조)을 보면 첫머리에 '듯하다/듯싶다'가 나온다. '이길 듯하다, 질 듯하다, 갈 듯싶다, 안 갈 듯싶다'가 원칙이지만 '이길듯하다, 질듯하다, 갈듯싶다, 안 갈듯싶다'도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손 가는 대로 붙여 써도 좋을 말이 여럿 더 있다. 그 식당 반찬, 먹을만하냐? (만하다) / 지금 상황이 오해할법한 상황이지 뭐. (법하다) / 오늘도 지각할뻔했다. (뻔하다) / 제발 모르는양하지 말고 설명 좀 더 해봐. (양하다) /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아는척(아는체)하지 왜? (척하다·체하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연합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Washington Post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健康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THANKSGIVING 11월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인기 아이템

리튼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99.00

종근당 침향환
침향 22% 함유
50개 $25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엿
말이 필요 없는 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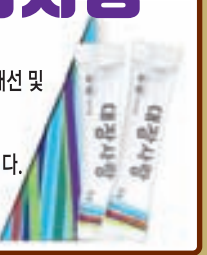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쳐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카무트 브랜드 밀
프리미엄 효소
- 소화 불량 개선
- 장 건강 증진
- 변비 예방
- 혈당 스파이크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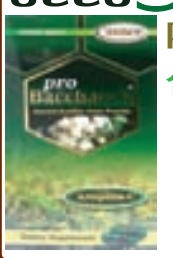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트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더 리포좀 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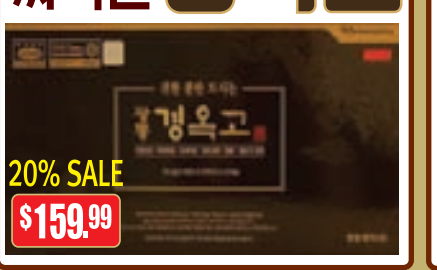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캐나다산 펌킨 오일
빈뇨, 다뇨, 잔뇨, 야뇨 & 탈모 Bye~~
전립선/방광 개선
탈모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작용


프라임 홍삼정 엑기스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의 비결!
6년근 국내산 홍삼 100% 농축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강원도 특산품
솔잎청 오미자청
저온추출 농축한 강원도산 오미자, 솔잎 추출액과 프락토올리고당, 플란타김치유산균을 사용하여 만든 프리미엄 청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2+1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2+1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싶으신 분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목, 허리,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치매예방!
신풍력 인기제품
포스파티딜
똑똑한 인지력
똑똑한 기억력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비에날씬 유산균
체지방 감소
장 건강 유산균
캡슐 사이즈를 줄여 섭취가 편안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60캡슐
$79.99

관절통증에 좋은
MSM / 보스웰리아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빽빽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사 설

25년 만의 최악 항공 대란, '추수감사절 악몽'으로 번져선 안 된다

미국 하늘길이 또다시 멈춰 섰다. 지난 13일 오후 연방항공청(FAA)의 관제 통신망 장애로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4시간 23분간 전면 중단되면서 이틀간 1만 2천 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5년 만에 최장 시간 기록된 이번 운항 중단은 세계 최고를 자부해 온 미국 항공 인프라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인재(人災)다.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미 당국의 안일한 시스템 관리가 더욱 뼈아프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기존 구리 통신망을 광섬유로 교체하는 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전국 항공망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 미국 항공관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23년 1월에도 FAA의 전산 시스템 장애로 전국 항공편이 멈춰 선 바 있다. 낡은 관제 인프라와 허술한 백업 시스템이라는 고질병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언제든 대형 대란으로 터져 나올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오는 26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다. 연중 최대의 이동 수요가 몰리는 명절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번 대란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특히 연휴를 맞아 고국을 방문하거나 타주에 거주하는 친지를 만나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한인 동포들의 피해와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어렵게 낸 휴가와 가족 상봉의 기회마저 날릴 위기에 처한 동포들이 적지 않다.

교통부와 FAA는 당장의 스케줄 복구는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합당한 보상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한국 IP 유망" 노린 해킹, 초국경 사이버 안보 공조 시급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한국의 정부·금융·통신 등 핵심 인프라 서버 30곳을 정조준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사이퍼마(CYFIRM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들은 다크웹 대화록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일부 IP 대역이 꽤 유망해 보인다"며 노골적인 침투 의도를 드러냈다. 단순한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금융 탈취와 기밀 첩보 수집을 겨냥한 치밀한 사이버 도발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 공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해커들의 타깃 설정 방식과 기술적 집요함이다. 라자루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부 기관, 금융권, 통신, 물류·항공, 제조업 등 7대 핵심 산업군의 PHP 기반 웹 서버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윈도우 환경에서 구동되는 PHP 코어의 원격 코드 실행(RCE) 취약점을 악용해 웹셸(악성 스크립트)을 심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내부망으로 수평 이동하며 공격 범위를 580여 개 호스트까지 넓히려 한 수법은 고도화된 사이버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주 한인 사회 역시 이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다. 해커들이 지목한 '유망 IP 대역'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주요 인프라도 나란히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금융 거래와 비즈니스 교류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한국 내 금융·통신·물류망이 뚫릴 경우 그 파장은 고스란히 미국 내 한인 기업과 동포들의 자산 및 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으며, 북한의 해킹 수익은 결국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한반도와 미주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돌아온다.

당장 시급한 것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의 철저한 점검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 한국과 서버·네트워크를 연동해 운영하는 미주 한인 기업과 금융·물류 관계사들 역시 즉각적인 보안 패치와 내부망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사이버 안보 공조도 한층 촘촘해져야 한다. 북한 해커들이 다크웹에서 한국과 미국의 IP 대역을 동시에 저울질하며 공격 거점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단위의 방어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와 첩보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유망한 먹잇감'으로 지목된 현실을 직시하고, 민·관과 동맹국이 합심해 철통같은 사이버 방어벽을 구축할 때다.

주요포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영접식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호시한 지사, 이괄 지사 및 두 지사 배우자들의 유해 영접식에서 유해 봉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 중앙 시론

'AI 황제' 젠슨 황의 불명예 퇴진, 개인의 일탈이 부른 시스템의 붕괴

실리콘밸리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혁명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Nvidia)의 공동 창업자 젠슨 황(63)이 결국 33년간 지켜온 제국의 왕좌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왔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누비며 전 세계 빅테크와 월가를 호령하던 'AI 황제'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시가총액 5조 8,00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정점만큼이나 충격적이고 허무하다. 지난 12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의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직 즉각 사임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술 혁신의 아이콘은 한순간에 도덕적 해이와 국가 안보 위기의 장본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파국의 도화선은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뇌관을 건드리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수면 위에 오른 첫 번째 스캔들의 상대는 싱가포르 기반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전직 임원이자 중국 국적자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리)이었다. 메가스피드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 첨단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싱가포르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곳이다. 미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을 베이징에 정보를 넘기는 중국 스파이로 지목하면서, 황 전 CEO의 사적 관계는 순식간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비화했다.

이러한 스캔들의 배후에 도사린 중국의 전방위적 기술 탈취와 반칙 행위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수출 통제와 글로벌 규범을 비웃듯 제3국 페이퍼컴퍼니와 우회로를 동원한 불법 밀반입을 일삼아 왔으며, 급기야 핵심 기술 기업의 수장을 포섭하기 위해 이른바 '미인계'와 첩보 공작까지 서슴지 않는 민낯을 드러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 대신 편법과 스파이 활동으로 첨단 AI 기술을 가로채려는 중국 당국의 행태는 국제 경제 질서와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대중국 기술 봉쇄망을 더욱 촘촘히 조여야 할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은 황 전 CEO의 거짓 해명과 잇따른 사내 부적절한 관계의 폭로였다. 초기 의혹 제기 당시 사측과 황 전 CEO는 "통상적인 사업 교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지난 8일 전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뒤늦게 혼외 관계를 시인하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황의 말을 믿는다"며 두둔하고 나섰음에도, 직속 보고 라인에 있던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과 또 다른 사내 여직원 등 복수의 사내 불륜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며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이해충돌과 이사회·임원진을 향한 기만행위는 더 이상 '천재 경영자의 사생활'로 용인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이다.

그가 남기고 떠난 시장의 충격과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스캔들과 사임 소식이 겹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0월 초 고점 대비 33%가량 폭락했고, 한때 세계 시총 1위를 달리던 기업 가치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1조 8,000억 달러(약 2,500조 원)나 증발했다. 뉴욕 증시의 반도체 지수가 출렁이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은 '정보 은폐'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돌입했으며, 대형 로펌 왁텔 립튼이 주도하는 독립위원회의 강도 높은 내부 감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곧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통상 무대에서도 엔비디아발(發) 안보 리스크는 미국의 규제 빗장을 한 층 더 조이는 명분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실리콘밸리식 '황제 경영'과 '1인 지배구조'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엔비디아는 약 60명에 달하는 임원이 황 전 CEO 한 사람에게 직접 보고하는 극단적인 수평적 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인자'나 공식적인 후계 구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창업자 개인의 판단 착오와 도덕적 일탈이 곧바로 글로벌 AI 공급망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직결되는 비극을 낳았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를 맡아 진화에 나섰지만, 쿠다(CUDA) 생태계와 차세대 칩 아키텍처를 진두지휘하던 창업자의 공백을 메울 정식 후임자를 찾는 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독점 Woodbridge 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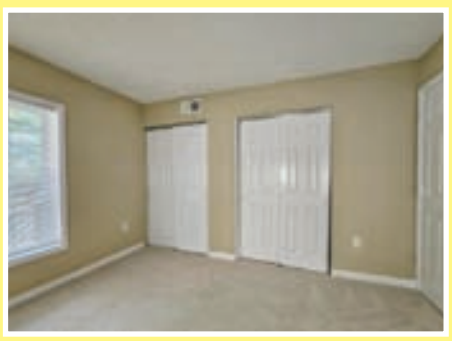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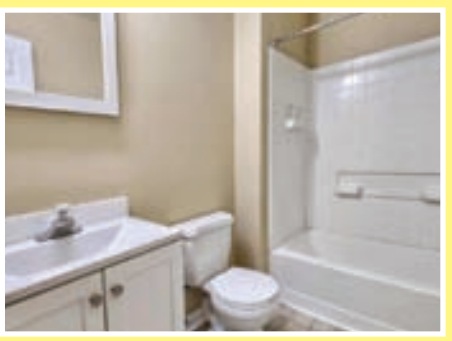
예쁘게 업데이트한 콘도, 새 페인트, 새 카펫, 세탁기 및 건조기 집안에 있음, 밝고 환한 콘도, 계단 없는 뒷뜰 출입 가능, 리모델링한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엌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 저렴한 콘도 Fee

$2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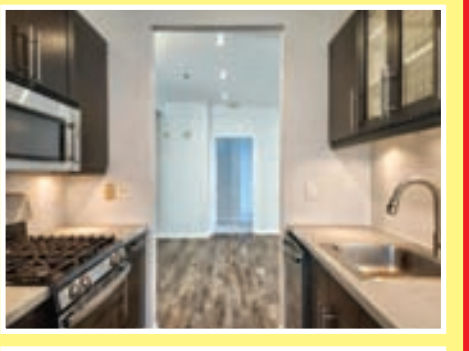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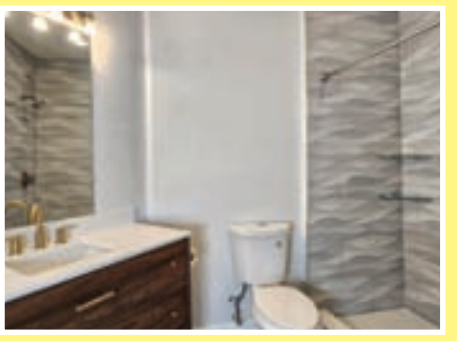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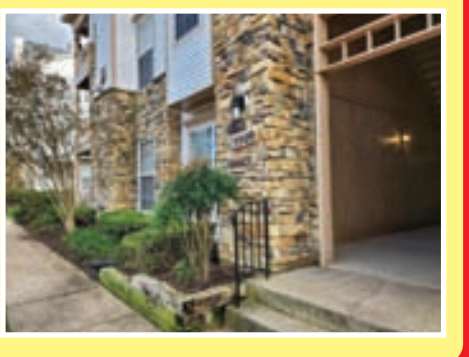
독점 Alexandria 콘도

예쁘게 리모델링한 콘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업그레이드함, 방 2, 화 2, 계단 없이 편리한 집, 고급 나무마루, 멋있는 부엌, 업데이트한 화장실, 교통 편리

$429,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새 단지, 2011년산, 2 Car Garage, Bay Window, 숲이 보이는 넓은 Deck, 방 3, 화 3 1/2, Parking Lot 6대, 밝고 환한 집, 새 카펫, 새 페인트, 업데이트한 부엌 (새 냉장고, 새 스토브, 새 전자렌지), 넓고 고급스러운 Granite,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56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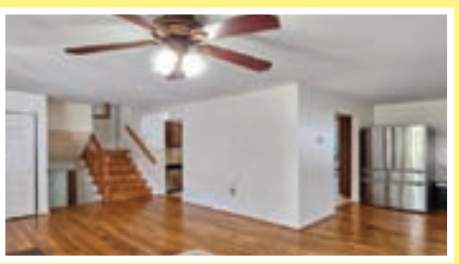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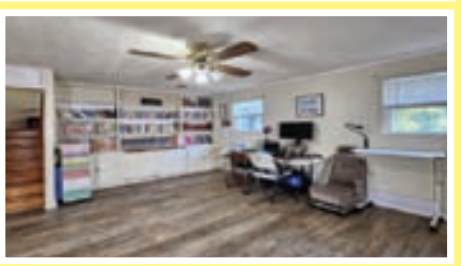


독점 Springfield 싱글홈

잘 관리된 단독주택, 업데이트한 집(지붕, 화장실, HVAC, 창문), 고급 나무마루, 4층 구조, 넓은 주차공간, 그림같이 예쁜 앞마당과 뒷뜰, HOA 없음

$69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合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
-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의료사고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Liquor License
- 보험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HK FIRM
ATTORNEYS-AT-LAW
www.shkfirm.com

Super Lawyers
Peter K. Hwang
SELECTED IN 2017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미디어 경제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Monday, November 16, 2026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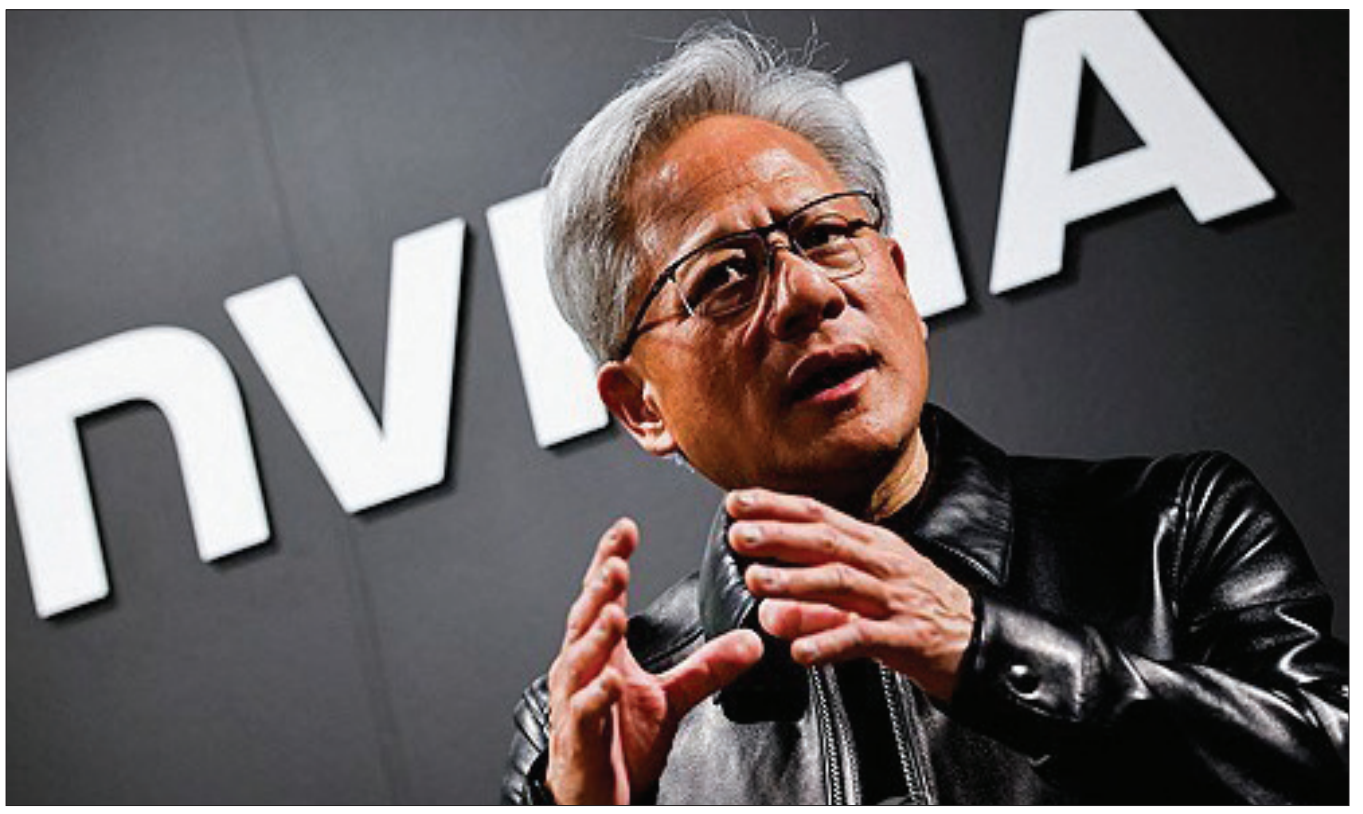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NYT "젠슨 황 몰락으로 아시아 'AI 대사' 잃었다"


젠슨 황 [로이터=연합뉴스]

韓 수백조원대 공동사업 조명…中, 美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우려
동남아 데이터센터도 투자 위축 가능성…"대체 인물 찾기 어려워"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몰락으로 아시아가 미국과의 인공지능(AI) 산업 협력을 이끌어온 핵심 'AI 대사'를 잃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황 전CEO가 아시아 각국 정부와 기업의 AI 투자를 이끌고 미국에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등 양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만큼, 그의 퇴진이 아시아 AI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황 전CEO는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한 기업의 경영자를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AI 혁명의 지도자'로 불렸고, 일본에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의 출생지인 대만에서는 '아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다.

황 전CEO는 중국 이외 국가들을 상대로 자체 AI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소버린 AI'(주권 AI) 구상을 설파하며 엔비디아 반도체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독려했다.

아시아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 경영진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도 힘썼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국이 언급됐다.

황 전CEO는 지난해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속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상대로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NYT는 한국에서 약5천100억달러(약682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엔비디아와의 공동 사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황 전CEO의 퇴진으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전CEO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중국 기술 분야 분석가 포 자오는 "중국이 미국 기술업계 내에서 사업 협력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옹호자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의 기술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황 전CEO의 퇴진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꿈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옹 키안 밍 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은 황 전CEO의 퇴진이 기존 및 신규 데이터센터의 AI 연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도 황 전CEO가 주도해온 AI 협력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황 전CEO는 지난7월 일본을 방문해 제조업과 산업용 로봇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피지컬 AI' 개발을 제안했다.

당시 출범한 기술 협력체에는 소니그룹과 소프트뱅크, NEC, 혼다 등 일본 주요 기업 40여곳이 참여했다.

대만에서도 황 전CEO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창업자 모리스 창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싱가포르 일간 비즈니스타임스는 황 전CEO를 "엔비디아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평가하며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찾기 어려울 인물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각국 총리와 마주 앉고, 워싱턴에서 동남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해줄 또 다른 엔비디아 CEO"라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HANS TRAVEL
문의전화 703-658-1717
hanstravelusa@gmai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교통사고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 나셨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pflores@rowepllc.com
전직 검사 노승훈 Robinson S. Rowe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병호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전월세 물건 품귀”…계약갱신청구권 비강남이 많이 썼다

갱신계약 늘고 갱신권 사용은 줄어…전세는 절반 이상 갱신계약
갱신권 사용 강남 적고 강북 많아…동북권 전셋값 강세 영향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재계약 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강남에 비해 비강남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신규 및 갱신 여부가 확인된 18만6천724건 가운데 46.5%(8만6천877건)가 갱신계약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41.3%)보다5%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매매 및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주거 이동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기존 집주인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계약은 증가했지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49.2%에서 올해 43.1%로6%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갱신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임차인 간 합의갱신을 체결한 경우가 작년 50.8%에서 올해는 57%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강남권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올해 전월세 계약의 52%가 갱신계약이었으나, 갱신권 사용 비중은 44.4%에 그쳤다.

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50%로 올해보다 낮았지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54.3%로 올해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

올해 서초구와 송파구도 갱신권 사용 비중이 각각 39.2%, 44.0%로 작년(각53.2%, 48.1%) 대비 크게 줄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 대출은 어려워지면서 이사가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합의갱신 형태로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임대차2법 도입이6년 차를 맞으면서 이미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월세 품귀 현상을 빚은 비강남권은 갱신권 사용이 두드러졌다.

올해 갱신권 사용 비중은 중구가 56.2%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55.6%), 도봉구(53.9%), 성북구(52.5%), 광진구(52.4%) 등에서 갱신권 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높은 전세는 절반 이상(52.7%)이 갱신계약이었고, 이 중53.3%가 갱신권을 사용했다.

이중 중구(66.2%), 종로구(64.2%), 성동구(62.2%), 동대문구(61.7%), 관악구(61.4%) 등의 전세는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권을 쓴 경우가 60%를 넘었다.

이는 올해 전셋값이 강북 위주로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9월까지 누적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21% 상승한 가운데 성북구의 전셋값이 13.58%로 가장 많이 뛰었고, 노원구 12.96%, 강북구 10.75%, 성동구 10.69%, 도봉구 10.43%를 기록하는 등 동북권(11.13%)의 상승률이 서울5대 권역중 가장 높았다.

올해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셋값이 각각2.52%, 4.13% 뛴 것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이다.

월세 역시 노원구 12.88%, 성북구 11.82%, 성동구 10.46% 등 동북권(10.10%)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1차 전용면적 59.99㎡는 올해 초 신규 계약 전셋값이4억8천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신규 건은6억5천만원으로1억7천만원(35.4%)이나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는 올해 초만 해도 신규 계약된 전셋값이 6억5천만~6억8천만원 선이었으나 현재는8억5천만~8억7천만원으로2억원(약30%)이 상승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유례없는 매물 품귀 현상이 길어지면서 임대료 인상률을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갱신권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를 얻지 못한 임차인은 다세대·빌라 등으로 옮겨가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유료구독 계정공유 피해 급증…서울시 ‘주의보’

장기 이용료 선결제 후 서비스 중단 · 환불 지연 속출
“계좌이체만 유도하는 업체 피해야”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려고 계정공유 서비스 업체에6개월~2년 치 이용료를 미리 냈다가, 갑자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가입 상품과 관련해 이용 중단과 판매업체 연락 두절, 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장기 이용계약에 주의하고, 오픈채팅 등으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만 유도하는 계정공유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시는 권고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2천323건에 달했다.

1~9월에는 월100건 미만이 접수됐으나 10월부터1천728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상담의 74.4%가 집중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선결제했으나,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돼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SNS와 유튜브에 게시된 계정공유 서비스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결제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안내받은 업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상담의 90.1%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였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해외 가족요금제에 추가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국가에서 우회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시는 전했다.

이러한 방식이 유튜브 이용약관에 위배될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구글(유튜브)의 정식 제휴업체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거래를 피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내 소비자의 공식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유튜브 측에 촉구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가족·학생·2인 요금제 등을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용자의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유튜브 고객센터가 가족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로 안내하는 곳은 한국과 벨라루스·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베네수엘라 등5개국뿐이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美재무 · 상무, 젠슨황 스캔들 충돌”…AI칩 中반입 제재 지연 논란 확산

베선트,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 이유 추궁…러트닉 “미중 무역전쟁 촉발”
‘백악관 충돌’ 美매체들 보도“트럼프 제재 승인에도 러트닉 추가검토 제안”
中스파이 연루 의혹 젠슨황 스캔들 속 트럼프 행정부 대응 문제로 번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스캔들’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행정부 내 다른 부처들의 요구에도 메가스피드 등 대중국 반도체 불법 반출 의혹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지연시켜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베선트 “메가스피드 왜 제재 않냐”…러트닉 “트럼프에 확인해보자”

11일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메가스피드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베선트 장관이 “어떻게 메가스피드가 거래제한 명단에 없느냐”고 묻자, 러트닉 장관은 머뭇거리다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NYT는 러트닉 장관이 베선트 장관에게 상무부가 이제 메가스피드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있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베선트 장관의 입장에 동조했으며, 러트닉 장관은 동의하는 듯하다가 “대통령에게 확인해봐야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참석자가 “좋다. 그럼 오늘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참석자들은 오후5시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문제를 보고했다.

“트럼프, 메가스피드 제재 승인…러트닉 ‘몇가지 방안 마련해 다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했으며, 머스크는 메가스피드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베선트, 루비오, 헤그세스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조치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렇게 하자”(Let’s get it done)며 추진을 승인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집무실 회의가 끝난 뒤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겠다”며 추가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다른 참석자들이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실행해버리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대량 구매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고객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이다.

미국은 2022년 말부터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으며, 미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이러한 규제를 우회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반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메가스피드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과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미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스파이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 논란 확산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에 미국산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메가스피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러트닉 장관과 상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은 앞서 차관급 회의에서도 논의됐으나, 당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은 러트닉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무부가 조치를 미루면서 행정부 내부에 불만이 확산했고, 결국 두 장관의 충돌로 이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상무부 대변인은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충돌 보도를 부인했다. 또 기업의 거래제한 명단 등재 여부는 상무부 단독이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이른바 젠슨 황 스캔들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불거졌다.

러트닉 장관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를 경고하는 행정부 극비 메모를 사전에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메모를 지난 5월 방중 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무부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승인하고 메가스피드에 대한 조치를 미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5월에도 베선트 재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러트닉 장관과 케슬러 차관에게 관련 조치를 촉구했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스페이스X · 테슬라, 사상최대 합병 임박…”이르면 내달 발표”



스페이스X·테슬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두 기업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인수·합병(M&A)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올12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양사 이사회가 합병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논의가 진전되면서 합병 조건과 지배구조 관련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스페이스X가 테슬라 투자자에게 얼마만큼의 주식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전기자동차부터 로켓, 위성통신, 에너지 배터리 등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복합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자율주행은 물론 로봇, 항공우주 사업에 두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합병 전 선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머스크를 겨냥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

양사는 합병 발표를 내년 초로 미루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트 굽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스페이스X는 국가 안보에 민감한 계약을 맺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는 중국에 제조시설을 두고 대규모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핵심 역학관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1조9천억 달러(약2천539조원), 테슬라는1조5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문병준 前특사 "중동 발판 아프리카 진출…삼각협력 논의할 때"

국회 세미나서 중동-아프리카 연계 강조…UAE 바라카 원전 등 언급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이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06차 아침 세미나'에서 문병준 리벨리온 중동·북아프리카 전략 고문(전 외교장관 특사·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이 강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6년 동안 중동 현장을 지켜온 외교 전문가 문병준 리벨리온 중동·북아프리카 전략 고문(전 외교장관 특사·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이 아프리카 진출 방안과 관련, 중동을 거점으로 한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고문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06차 국회아프리카포럼 아침 세미나' 강연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가는 삼각협력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이 제시한 삼각협력은 한국과 중동, 아프리카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그는 과거에도 삼각협력 논의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삼각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벽한 구상보다는 동아프리카 농업·식품 가공 분야 등 작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농업·가공 기술과 걸프의 자본·물류망, 아프리카의 토지·인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특히 현지 일자리 창출, 생산과 수출 증가, 투자비 회수, 현지 기업 성장 등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가 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제3국 원전이나 대형 인프라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5월 중동 사태 국면에서 외교장관 특사로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를 방문한 문 고문은 사우디, UAE, 카타르 등 걸프의 산유 부국들이 아프리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을 짚었다.

이들에게 아프리카는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농지와 항만, 물류망을 선점하기 위해 무슬림 네트워크와 교육·문화적 고리를 바탕으로 깊숙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아프리카를 여전히 단순 원조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동의 경우처럼 한국도 아프리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합니까"라고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또 걸프 인사들에게 들은 뼈아픈 지적이라면서 "한국은 사회·문화는 잘 안 보고 경제적 측면만 우선해 본다"며 한국은2~3년 주기의 잦은 담당자 교체 때문에 현지 결정권자와 장기적 신뢰를 쌓기 어려웠던 점도 현장에서 느낀 외교적 한계로 꼽았다.

문 고문은 최근 외교장관 특사로 중동을 찾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려울 때 찾아와 준 진정한 친구"라며 신뢰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동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류가 특히 중요하다며, 요즘처럼 이란 전쟁으로 걸프 국가들이 어려운 때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협약(MOU)은 단순히 구속력 없는 합의서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라며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날 때도 공식 미팅 외에 식사 자리와 차 한잔을 나누는 비공식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조언했다.

문 고문은 한국 사회가 아프리카를 바라볼 때 가진 주요 통념4가지(멀다, 하나다, 도와줄 곳이다, 위기는 아프리카에서 나온다)를 짚으며 정밀한 시각 교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사우디 제다에서 수단 포트수단까지는 약300km로 서울~부산보다 가깝다"며 지리적 인접성을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 역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와 '아프리카의 뿔 지역'(소말리아·에티오피아·케냐 등)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랍연맹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인 '겹치는 10개국'(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등)이 존재하듯 걸프 국가들처럼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아닌 명확한 핵심 거점 국가들을 선택해 교류협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량 안보와 청년 인구 동력을 갖춘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을 거듭 주문했다. 아프리카 정세 불안의 근원이 중동 역내 강국들과 연결돼 있음을 살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아프리카포럼 이헌승 회장과 김건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주영·조배숙·백선희 의원,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이지희 외교부 아프리카1과장, 홍진욱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위원(전 이집트 대사), 박동혁 국제이주기구(IOM) 기니·라이베리아 사무소 총괄, 김민진 현대차 책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달러 가치 19개월 만에 최고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1년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주요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0.6% 오른 102.84로 마감했다.

지난해4월9일(102.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는 유로화와 엔화 대비 각각 0.6% 상승했다.

전날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0.4% 올라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에너지·식품을 뺀 근원 CPI도0.3% 올라 예상치(0.2%)를 넘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같은 날 런던의 한 콘퍼런스에서 12월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면서도 10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0.3% 이상이면0.5%포인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75~4.00%에서0.25%포인트 올릴 확률을 90.7%, 0.5%포인트 올릴 확률을9.3%로 반영했다.

동결 가능성은 일주일 전17.3%에서 0%로 떨어지며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로화는 프랑스 부채 우려에 유가 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기대가 줄면서 장중1.108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화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 정보 노출 우려’…유나이티드, AI 비서 항공권 예약 금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자사 시스템에 접속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날 AI 에이전트가 항공권 예매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거나 의도치 않은 구매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사 측은 AI의 행위가 미 연방항공청(FAA)이나 교통부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I는 체크인할 때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공권 예매는 할 수 없지만 AI 에이전트를 통해 유나이티드 항공의 옵션과 가격을 확인할 수는 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운영상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지만 대리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또 다른 중개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스콧 커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CEO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항공청 · 교통부 규정 위반 가능성도…대리인 상거래 신중하게 접근”

항공사들은 이전에도 온라인 여행 중개업체들과 티켓 판매 방식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미국의 다른 항공사들은 AI 에이전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해 초 챗GPT에 ‘플러그인’(plug-in)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들이 항공편과 가격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항공사의 밥 조던 CEO는 고객들의 AI 사용법을 시험해보기 위해 플러그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델타 항공은 AI 에이전트가 인증을 받으면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여행 같은 민감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메리칸항공은 AI 에이전트가 특정 파트너를 거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 등 여행 관련 업계가 AI 에이전트의 활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지만 AI를 통한 실제 거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테크놀로지스는 이달 초 핼러윈 시즌에 운전자들이 우버와 온라인 배달앱 우버이츠를 통해3억2천만건의 이동을 기록했지만, AI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500건의 우버이츠 주문과4건의 탑승 예약만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발전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고객의 데이터와 보안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다른 항공사 측에 권고했다.

‘젠슨황 충격’에 미기술주 휘청…AMD · 브로드컴은 반사이익 기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충격에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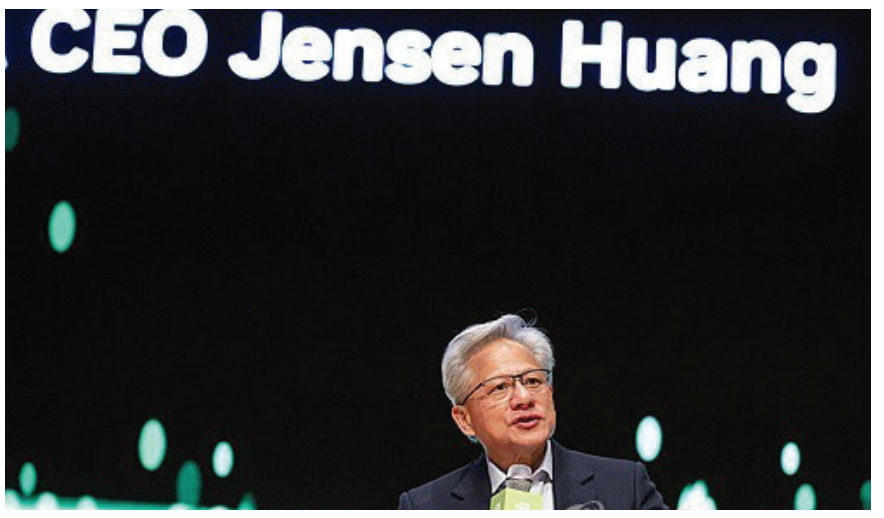
다만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브로드컴은 반사이익 기대에 상승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황CEO의 사임 여파로 전장 대비 약1.5% 하락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오전 10시21분 현재 나스닥 지수는0.69%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0.45%,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0.18% 각각 하락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3.08% 급락한 151.00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중 한때 14% 넘게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 초반 급락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25년 이후 처음으로4조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한때 최대6천10억달러(약802조원)가 증발했다.



젠슨 황 [EPA=연합뉴스]

황CEO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인 앨리스 황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자사의 직속 여성 임원과도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이날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CEO의 사임과 함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시 CEO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리더십 공백 우려는 AI 관련주 전반의 투자심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수혜주로 꼽히는 오라클(-2.3%), 마이크론테크놀로지(-4.4%) 등이 하락세다.

반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브로드컴은 각각1%대, 5%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나스닥1.5%↓ · 엔비디아 13%대↓ 출발…AI 시장 판도 변화 주목

당분간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황CEO 사임은 최악의 시나리오” 평가도

황CEO의 퇴진으로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객사들이 반도체 공급처 다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MD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직접 경쟁하는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브로드컴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의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삭소은행의 차루 차나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공급처 다변화에 나설 경우 AMD와 브로드컴, 알파벳,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구축한 기술적 우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랜즈버그 랜즈버그베넷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젠슨 황의 사임은 이번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엔비디아 주식의 가치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황의 비전과 회사를 이끄는 능력도 포함돼 있었다”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 중앙 광고 문의 : 703-281-9661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consumeraccess.org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융자 가능한 주
* 버지니아 * 델라웨어
* 메릴랜드 * 알라바마
* 워싱턴 DC * 플로리다
* 뉴저지 * 테네시
* 조지아 * 미시간
* 웨스트 버지니아 * 캘리포니아
* 노스 캐롤라이나 * 펜실베니아
* 사우스 캐롤라이나

NMLS #: 2425871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Top 50 Mortgage Company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 NMLS # 1898832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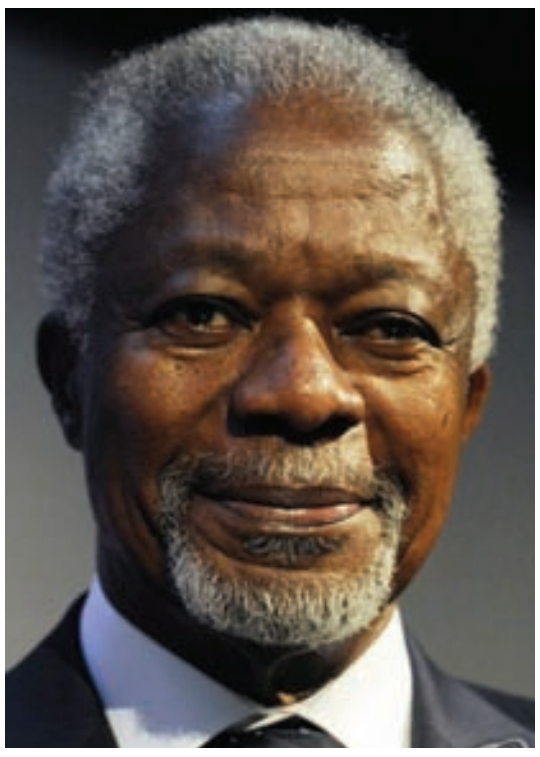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최초 흑인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분쟁 해결 헌신한 ‘미스터 유엔’…평직원서 수장 돼 노벨평화상까지
국제문제 적극 개입…인권 · 개발 · 평화 ‘통합 의제’ 제시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1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을 대표한 한승수 당시 유엔총회의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오늘 이 자리에서 코피가 남긴 유산과 그가 살핀 수백만 명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가 자주 강조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발전 없는 평화는 없고, 평화 없는 발전도 없으며, 인권 없는 평화와 발전 또한 없다.’ 그는 이것이 유엔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9월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별세했을 때, 그의 재임 중 유엔인권최고대표로 함께 일한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추모연설에서 이처럼 그를 기렸다.

가나 출신인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반평생이 넘는 44년간 유엔에 몸담아 ‘미스터 유엔’으로 불렸다. 지역분쟁 해결과 세계평화에 헌신하면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1938년 영국 식민지였던 가나 쿠마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인 ‘코피’는 ‘금요일에 태어난 소년’이라는 뜻이다.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부족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세이던 1957년 가나 독립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미네소타주 매캘러스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 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196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산·행정담당관으로 유엔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유엔 내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유엔난민기구(UNHCR), 제네바 유엔사무소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확대된 여러 국제분쟁 중재에 참여하기도 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유엔사무총장 특사로 나서 이라크에 억류된 유엔 요원과 서방 인질 900명의 석방을 끌어냈다.

1993년 평화유지활동(PKO) 사무차장으로 임명됐으며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대량학살 등 지역분쟁 해결에 노력했다. 하지만 르완다와 보스니아와 관련해선 당시 유엔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대응 실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난은 1997년 이집트 출신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에 이어 제7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외부 정치인이 아닌 유엔 내부 직원으로서 최고위직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이자 첫 흑인 유엔사무총장이었다.

아난은 유엔 수장이 된 이후 조직개혁에 앞장섰다. 방대한 유엔 사무국 조직을 통폐합하고, 유엔본부 직원도 대폭 감축하며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에이즈 확산 방지 등에 노력하면서 2015년까지 빈곤퇴치, 질병예방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촉구했다.

2001년에는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0주년을 맞은 노벨평화상을 유엔과 공동 수상했다.

역대 유엔사무총장 가운데 재직 중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그가 유일하다.

노벨위원회는 당시 “아난 총장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전통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권에 대한 유엔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에이즈,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 왔으며, 유엔이 가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난은 앞서 1998년 제4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방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했다.


1998년10월23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대화하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유엔사무총장 재선에 성공한 아난은 2006년12월 마침내 유엔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난 전 총장은 당초 ‘관리형 총장’으로서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취임하자마자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동티모르 분리독립 분쟁 등 국제문제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그의 재임 기간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일화가 유명하다.

2003년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자 “유엔과 국제 사회에 모두 슬픈 날”이라며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의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를 가리켜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사무총장은 “코피 아난이 유엔이었고, 유엔이 곧 코피 아난이었다”고 그의 장례식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아난 전 총장은 퇴임 이후에도 분쟁 해결과 평화 임무에 헌신했다. 2012년2월에는 유엔과 아랍연맹에 의해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특사로 임명돼5개월 동안 활동했다.

또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해 설립한 세계 원로정치인 모임 ‘엘더스’(The Elders)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난 전 사무총장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미국 등 강대국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구체적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위협받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난이 르완다 집단학살과 보스니아의 대량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제의를 거부했다며, 아난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난의 아들 코조가 과거 탈세 등 범죄 혐의에 휘말린 점도 그의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하지만 다자주의를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아난의 노력은 오늘날 유엔의 근간으로 남아 있다. 그는 인권을 유엔 의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개발과 평화, 안보 문제를 별개가 아닌 통합 의제로 정착시켰다.





제니 '드라큘라', 빌보드 싱글3위…K팝 여가수 최고 타이 기록

로제 '아파트'와 타이' 빌보드 200'서 아일릿6위 · 아이브 126위 첫 진입

마이클 잭슨 '스릴러', 핼러윈 시즌에 싱글 · 앨범 차트서 깜짝2위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26일 서울 여의도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블랙핑크 제니가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드라큘라'(Dracula)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3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10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드라큘라'는 전주보다 두 계단 상승한3위로 58주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Golden·최고 순위1위)을 제외한다면, 동료 멤버 로제가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로 달성한3위와 더불어K팝 여성 가수 사상 '핫100' 최고 순위 타이 기록이다.

'드라큘라'는 지난해 10월 테임 임팔라의 솔로곡으로 발표된 후 올해2월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공개되면서 숏폼(짧은 길이 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며 차트에서 역주행했다.

노래가 장기 흥행을 이어가면서 제니가 이 곡을 통해 다음 주 공개될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애니멀'(Animal)은 '핫100'에서 전주보다 다섯 계단 하락한 32위로 15주 연속 진입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걸그룹 아일릿의 '브레이크 이븐'(Break Even)과 아이브의 '룩스 캔 킬'(Looks Can Kill)이 각각6위와 126위로 데뷔했다.

이 밖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3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5집 '아리랑'(ARIRANG)은62위, 캣츠아이의 '와일드'(WILD)는65위, 스트레이 키즈의 '디스 앤드 댓'(This & That)은139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설적인 히트곡이자 동명 앨범 '스릴러'(Thriller)는 미국 핼러윈 시즌을 맞아 싱글과 앨범 차트에서 모두 깜짝2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올해 거래 규모 980억원

생산유발효과 920억원…정연욱 의원 "국비 지원3년 새 절반 줄어"



지난 12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거래 규모가 약9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리서치 서비스 기업 서던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ACFM의 세일즈 거래 금액은7천339만달러(약98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ACFM의6천337만달러보다 15.8% 증가한 규모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개최되는 ACFM은 아시아 콘텐츠 지식재산(IP) 등을 거래하고 공동 제작과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해 행사는 지난달 10~13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ACFM 참가자는 연인원 기준 58개국3만484명으로, 2024년(51개국2만6천435명)보다 15.3% 증가했다. 이 중 업계 관계자 등 마켓 배지 등록자는 2천261명이었다.

ACFM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1인당 지출액은 141만7천원으로, 2024년(78만7천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참가자 지출액에 행사 예산을 더하고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도출한 생산유발효과는 920억원이었다. 이는 2024년(471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ACFM 참가자 가운데 해외에서 온 사람은 65.0%에 달했고, 부산 체류 기간은 평균5.4일이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가 부산에서 지출한 금액은1인당 186만원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 성과를 묻는 설문(복수 응답 허용)에서는 '신규 파트너 발굴'(6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IP 소개(42.8%), 공동제작·투자 구체적 협의(30.3%), 가격·조건 협상(16.9%), 계약·MOU 체결(9.0%) 순이었다.

서던포스트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2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주최, 부산국제영화제 주관, 부산시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ACFM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23년13억원에서 올해6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영화제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영화제 지원 공모사업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현행 방식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회계에 직접 지원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디어 중앙 기사 관련 : 703-281-9661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금액	설명
주택 매매	5244 Stoney Branch Ct,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595K	손님이 원하는 동네에 집 나오자마자 좋은 조건으로 득템, 로리는 항상 오퍼는 이김, 9/11 세틀먼트 예정 NEW
	2715 Pembsly Dr, Vienna, VA	UNDER CONTRACT	$960K	비엔나 메트로 옆 차고 2 타운홈, AC 2개, Nottaway 공원 옆, 9/9 세틀먼트 예정
	915 N Patrick St Unit 407	SALE	$425K	Old Town, 아주 좋은 위치, 방 1, 화 1, 4층 로얄층, 편리한 layout.
	11893 Benton Lake Rd, Bristow, VA	SALE	$679K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2905 Bleeker St #4-304, Fairfax, VA	SOLD		셀러/바이어 서로 좋은 조건 협의 계약.Everybody Happy, 7/15 세틀먼트 완료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SOLD		애난데일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 As-Is Condition 매매 7/6세틀먼트 완료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OLD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화 2, 차고 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월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6/30 세틀먼트 완료
	13511 Lavender Mist Ln, Centreville, VA	SOLD		투자용 집으로 구매. 1031 Exchange Program 으로 갈아탐. 6/30 세틀먼트 완료
	10003 Donal Ln, Vienna, VA	SOLD		손님이 너무나 원하던 동네. 6개의 경쟁 오퍼 뚫고 $3K 차이로 득템, Buyer So Happy, 6/24 세틀먼트 완료

	주소		기간	세입자
주택 렌트	올 겨울/내년 봄,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9월 ~ 12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632 Morrill Ct, McLean, VA 22101	NEW	$5,500 RENT	주재원이 6년 이어서 살았음. 주인이 로리 손님을 받고 싶어서 부탁함. 롱펠로우 중 - 맥클린 고, 9/27 입주가능
	1811 Fallbrook Ln, Vienna, VA	NEW	RENTED	주재원 3년
	1814 Fallbrook Ln, Vienna, VA	NEW	RENTED	주재원 1년
	7205 Van Ness Ct, McLean, VA	NEW	RENTED	크레딧 좋은 세입자 2년
	9915 Littleton Dr, Fairfax, VA	NEW	RENTED	마켓에 내 놓자 마자 1시간안에 렌트 완료, 3년
	3134 Delburne Ct, Fairfax, VA	NEW	RENTED	주재원 1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RENTED	사랑하는 교민 1년
	1830 Clifdale Ct, Vienna, VA	NEW	RENTED	사랑하는 교민 1년, 새 집 짓는 공사중
	9340 Sweetbay Magnolia Ct, Fairfax, VA		RENTED	사랑하는 교민 2년
	2233 N Underwood Dr, Falls Church, VA		RENTED	타국 주재원 3년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홉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테이션,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구인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클롭의 독일, 세르비아3-1제압…사비의 네덜란드는7-0대승


기분 좋게 퇴근하는 독일 축구대표팀 [AP=연합뉴스]

독일, 네이션스리그8강 불씨 살려…17일 네덜란드와 최종전

독일이 세르비아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 8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독일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스타디움에서 치른 2026-2027 UNL 리그A 2조5차전에서 세르비아에3-1로 이겼다.

지난 10월 세르비아와 맞대결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 체제 첫 승을 거둔 독일은 이번에도 세르비아를 제물로2승째를 올렸다.

클롭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으로 경질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독일 지휘봉을 잡았다. 부임 뒤5경기에서2승째(2무1패)를 거뒀다.

독일은 경기 시작3분 만에 상대 자책골로 앞서갔다. 코너킥 상황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헤더가 세르비아 수비수 스르단 바비치의 몸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전반 14분에는 하베르츠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내자 플로리안 비르츠가 흘러나온 공을 밀어 넣어2-0을 만들었다.

후반5분에는A매치 데뷔전을 치른 브라얀 그루다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뒤 단독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고 땅볼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세르비아는 후반 11분 자책골의 주인공 바비치가 만회골을 넣었으나 후반 31분 바냐 드라고예비치가 거친 태클로 비디오판독(VAR) 끝에 퇴장당하며 추격 동력을 잃었다.

후반 44분에는 세르비아의 안드리야 지브코비치도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에서 쫓겨났다.

이 경기는 세르비아가 팬들의 인종차별적 행위로 UEFA 징계를 받은 탓에 무관중으로 열렸다. 다만 교사나 축구 지도자를 동반한 15세 미만 어린이 등 약5천명의 입장은 허용됐다.

키미히는 경기 뒤 "전반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축구를 했다. 후반 들어 문제가 생겼고 경기가 어수선해졌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다. 승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같은 조의 네덜란드는 홈에서 그리스를7-0으로 대파하고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전반6분 크리센시오 서머빌의 선제골로 포문을 연 네덜란드는 티자니 레인더르스가 21분 사이에3골을 몰아치며 전반 해트트릭을 완성, 여유롭게 승리했다.

네덜란드는 승점 11로 조 선두를 달렸다. 그리스와 독일이 나란히 승점8을 기록 중이고, 5전 전패의 세르비아가 최하위다.

조 상위2개 팀이8강에 오르며,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을 따진다.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3팀이8강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다.

독일은 17일 베를린에서 네덜란드와 최종전을 치른다. 그리스는 홈에서 세르

최혜진, 이글로 반등…LPGA디 안니카2R도 공동 선두

윤이나는 공동6위…코르다는 공동9위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디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앳 펠리컨(총상금 325만 달러) 둘째 날 이글로 반등에 성공하며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켰다.

최혜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 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2라운드에서 이글1개, 버디4개, 보기3개를 묶어3타를 줄였다.

1라운드 61타, 2라운드 67타를 적어낸 최혜진은 중간 합계 12언더파 128타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린디 덩컨(미국)과 동타를 이뤘다.

2022년LPGA 투어 데뷔 이후 좀처럼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최혜진은 이번 대회에서 이틀 연속 리더보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리며 첫 우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최혜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홀에서 한 타씩을 잃는 등 바람이 불었던 전반에 보기3개, 버디2개를 적어내며 흔들렸다.

후반 들어1번 홀(파4)에서 버디로 분위기를 바꾼 최혜진은6번 홀(파4) 버디에 이어7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냈다.

1라운드에서도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던 최혜진은 경기 뒤LPGA 인터뷰에서 "공이 잘 튀어 올라 그린 위에 안착했고, 4m이글 퍼트를 넣었다"고 말했다.

최혜진은 "최근 대회에서 챔피언 조에서 경기했다"며 "그 경험을 살려 남은 두 라운드에서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혜진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뷰익 LPGA 상하이와 한국 해남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속 준우승했다.

두 명의 일본 선수 사이고 마오와 가쓰 미나미가 중간 합계 10언더파 130타를 쳐 공동 선두 그룹을2타 차로 추격했다.

1라운드에서 64타를 쳤던 윤이나는 2라운드에서3타를 줄여 공동5위에서 공동6위(중간 합계9언더파 131타)로 내려왔다.

두 달 만에 대회에 출전한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보기 없디 버디1개만을 기록하며 중간 합계8언더파 132타로 공동9위에 자리했다.

이틀 연속 최혜진과 같은 조에서 경기한 코르다는 "버디 기회는 많았는데 그린 위에서 조금 고전했다"며 "퍼트를 잘 못한 것은 아닌데 그린의 굴곡과 스피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진희, 고진영, 유해란, 김아림, 강민지는 나란히 중간 합계4언더파 136타를 쳐 공동 31위로2라운드를 마쳤다.


최혜진 [AP=연합뉴스]

2026년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미디어중앙에서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UNI는 19개의 지사를 통해 지난 16년간 재정 플랜을 설계해 드리고 있는 One Stop Financial 전문 에이전시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UNI 전문가들이 40여개 회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맞춤형 재정 설계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 모두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Lori Moon 문 로리	Linda Lee 이 린다	Unsin An 안은신	Eunice Lee 이은경	Kyung Ja Oh 오경자	Minji Park 박민지	Miwon Chang 장미원	Shin Hyung An 안신형
District Marketing Director	Marketing Director	Marketing Director	Senior Agent	Senior Agent	Field Agent	Field Agent	Field Agent
703-895-7648	443-515-8522	804-464-3662	703-855-0929	443-690-4290	410-353-6402	703-486-6082	804-690-0323

FG ANNUITIES & LIFE · corebridge financial · Allianz ·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 NOA North American Company for Life and Health Insurance Since 1886 · National Life Group · Prudential

Nationwide · MetLife · MassMutual FINANCIAL GROUP THE BLUE CHIP COMPANIES · SYMETRA RETIREMENT | BENEFITS | LIFE · Genworth Financial · TRANSAMERICA

Lincoln Financial Group · John Hancock LIFE INSURANCE · ATHENE · AccordiaLife · PACIFIC LIFE · NATIONAL WESTERN LIFE INSURANCE COMPANY

생명보험 | 개인 은퇴연금 | 비지니스 절세 상품 및 은퇴연금 | 재산 상속 플랜 | 학자금 준비 | 건강보험 | 재정교육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https://uniwfm.com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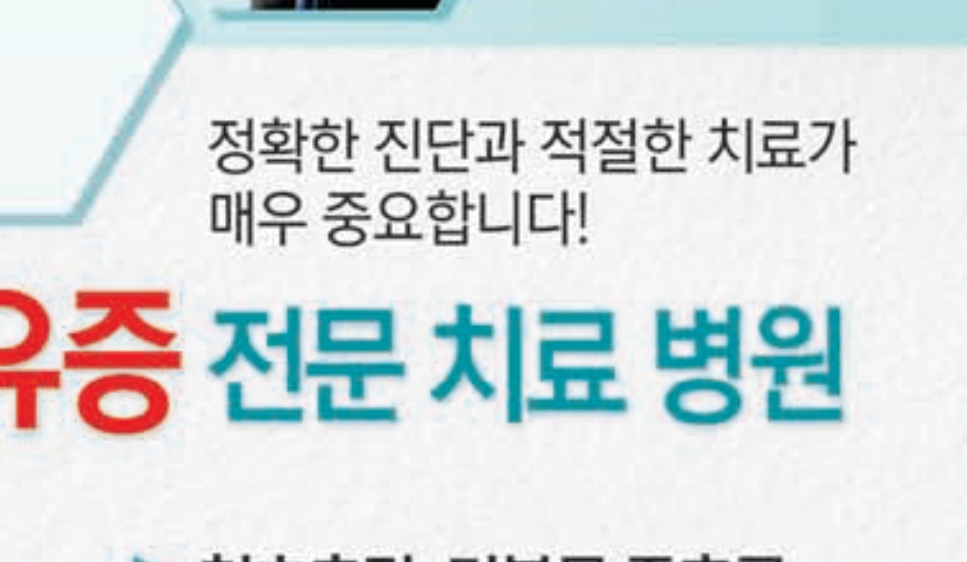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좌골 신경통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관절 클리닉
- 손발 통증 및 저림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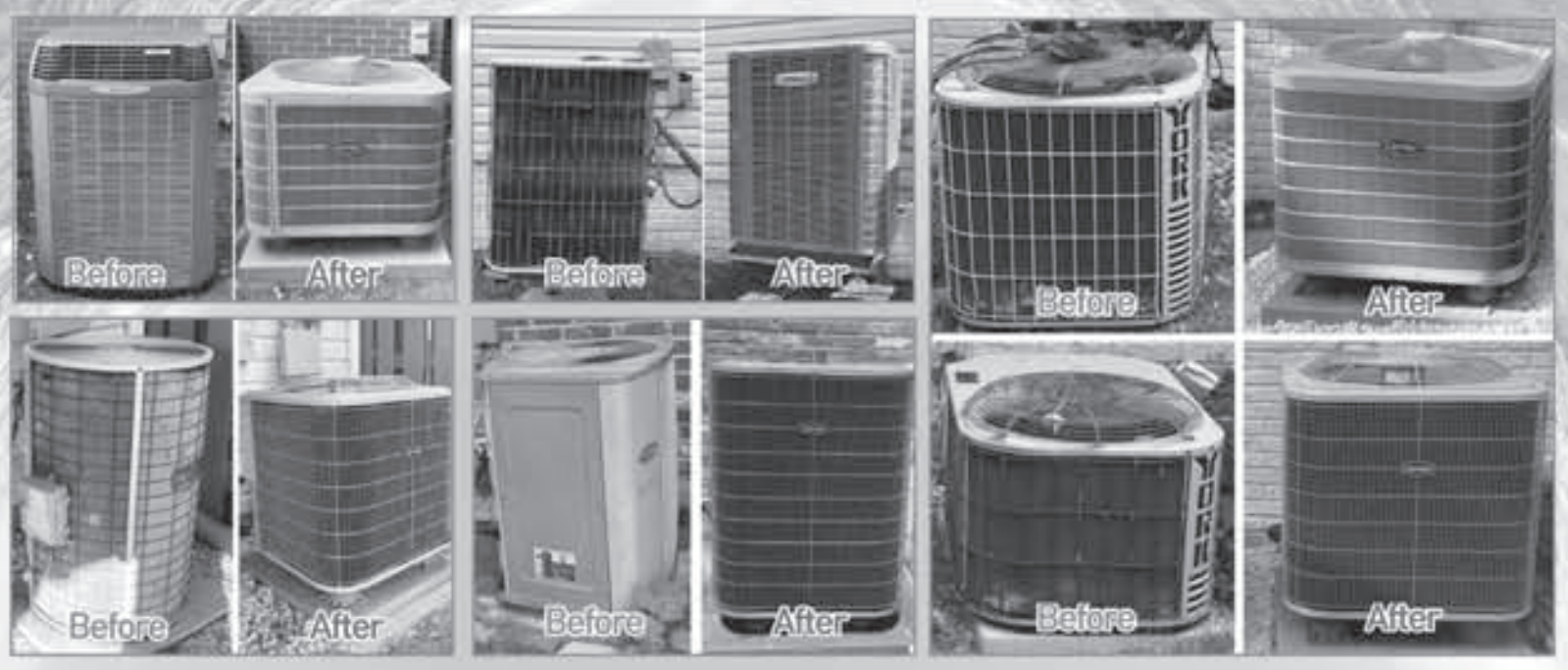
COO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sor BBB LENNOX Carrier TRANE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1월 구인광고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메디케어(Medicare) 전문가 Paul Kim(수봉)

"복잡한 메디케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5세 (1961년생) 신규 가입부터 플랜 변경까지,
메디케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나에게 꼭 맞는 파트 C(우대 플랜)와 파트 D(처방약 플랜)는 무엇일까?
- 정부 보조 혜택(수수료 면제 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수많은 플랜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립니다.

체크 리스트

1.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처음 받으시는 분
2. 현재 가진 플랜의 치과, 안경, 약 보조 혜택을 더 키우고 싶은 분
3.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셨거나 처방약 변경이 필요한 분

상담: 703-223-6961 (편하게 전화 주세요)
*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185,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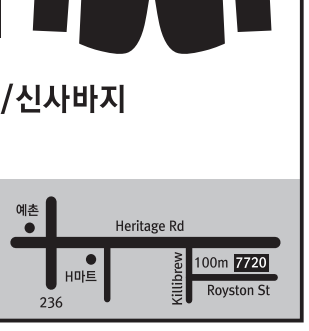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목폴라	콤비	점퍼
반코트	와이셔츠	남방
양복	바지	티셔츠
벨트	양말	넥타이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 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 모집
- 높은 수준의 급여 제공
- 간병사 교육비 전액 회사 부담
- 경험이 없으신 분도 환영
- 최상의 서비스와 지원 보장

문의 : 443-996-9006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 703-862-539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 언어 (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이메일 :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직원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 건강 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 구인

H마트 MD 프레데릭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직원 구합니다.
- 주방장 또는 한식조리 경험자
- 주방 보조
- 주급 추후 협의

(문의) 240-220-8191

하노버 지역 의료 복지 센터에서 직원 모집
- 주방 보조 (풀타임)
- 운전 기사 (풀타임)

443-621-2625

엘리콧시티 Cafe June 직원모집
- 주방 보조 및 관리 직원
- 식기 세척, 주방 정리 및 간단한 음식 준비
- 토/일 근무 포함 주 5일 이상 근무 가능자
- 경력 무관, 초보자 환영
- 정해진 근무 일정을 성실히 지키실 분
- 초임 $20/hr부터 + 주말, 공휴일 보너스 별도 지급

문의 : 443-386-0515

엘리콧시티 펫 그루밍 센터에서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443-759-9798

싱글/타운/방 렌트

실버스프링 방 렌트 합니다.
큰 방 $600, 작은 방 $500
301-646-3127

저먼타운 뉴 그랜드 마트 근처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인터넷, 침대, 가구 완비
301-538-1438

교통 편리한 콜롬비아 지역 타운하우스
큰방1, 욕실1, 방세 놓습니다.
잠만 주무실분 환영 (간단한 조리가능), 유틸리티 별도
410-585-7336 (문자요망)

저먼타운 싱글홈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렌트
방2, 부엌, 응접실, 욕실, 출입문 별도
202-985-9191 (문자나 메세지 요망)

베데스다 반지하 큰방 렌트합니다
부엌, 화장실, 취사 가능
240-543-1601 (메세지 요망)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곳에 위치한
(495 &95 만나는곳) 싱글하우스 방렌트 또는 하숙 가능
301-385-3535

중고 매매 /기타

2칸짜리 웍 화로 필요하신분
(중국 식당용, 중고, 물 시스탬,개스)
703-401-9997

중고 장비 매매
각종 장비, 마루 타일 소, 테이블 소, 슬라이딩 암소, 일렉트릭 앵글 소, 각종 드릴 10 가지
메릴랜드 571-332-3987

케어피플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셀폰 신청 가능
교육기간 : 11/9 - 11/13 (전화 예약 필수)
(MD) 301-966-7000
(VA) 571-297-4747

리프트 2대 매매
가정용 리프트, 설치후 사용하지 않아 거의 새것임
703-268-0107

사업체 매매

** 급매 $185,000 ***
KOREAN BBQ & HOT POT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리모델링, 저렴한 렌트
게이더스 버그, MD
(문의) 240-988-6868

픽업스토어 매매 $3만
주 4000, 페어팩스, 코비드전에 6000불 하던곳, 사이즈 1000sf
(문의) 240-381-8263 Hahn &
703-929-6689 로라

코인 런드리 사업체 매매
실버스프링, MD
202-494-3653

1. MD 디저트샵 $9만 천
   손쉬운 운영, 매상 더 올릴수 있는 최고의 지역
2. 애난데일 식당 두곳 $15만, $35만
3. MD Fried Chicken 식당
   $38만/주2만, 큰 대로변 위치
4. 그외 식당 , Beer & Wine Listing 다수 확보

▶ 703-642-6342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 분식점, 샤핑몰내 매니저 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대로변, 높은 매상AP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 치킨전문점, 좋은 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 303-8003

1. 메릴랜드 리커스토어 4백만불 건물 포함, 매출 연 2백2십만불, 인벤토리 40만불
2.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10만불, 인벤토리 20만불
3.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5000 sf, 가격 15만불, 고정 정십
4. 커피샵/디저트 사업 시작하실분 단독건물/건물구입 1백 8십만불
5. 세차장 하실분 5백5만불/ 2백만불/ 8백9십만불

▶703-928-5990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 골프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레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 $20/h 컴퓨터, 영어 가능자
- 취업 영주권스폰 가능

Resume: annandalecpa22@gmail.com
문의: 571-459-8109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 구합니다.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코너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United Mortgage Nation 에서
Loan Processor or Assistant 직원 모집
문의 및 이력서: esilva@umnloan.com

컴퓨터 테크니션 내근 & 외근 하실분 구함
- 초보자 가능, 영어 가능자 환영
- 성실하신분, 영주권 스폰 가능
- 근무지 : 센터빌

문의 : 703-674- 8824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직원 모집
- 매니져
- 자격 : 회계사 자격증 / 관련 분야 3년 이상

문의 및 이력서 : hr@yicompany.com

Pastor
Preach for church congregation and teach Bible study groups to enrich member's spiritual life. Organize and lead church services. Provide pastoral care and visit church members.
Required MA degree in Theology, Divinity or Christianity, Certificate of Pastor Ordination. Salary: $54,642.00. Health insurance, retirement plan & paid vacation.
Please send resume, ordination certificate, diploma and transcripts to Global Mission Church of Greater Washington,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롯데 플라자마켓 스털링 사무직 직원을 구함
- 모집분야 :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
- 지원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한 분 (유경험자 우대)
- 이력서접수 : fdm1@lotteplaza.com

▶문의 : 703-817-6312

K MARKET 직원 모집
- 모집 분야 : 업소 관리 (경력자 우대)
- 지원 자역 :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가능한분
- 지원 방법 : Customer Service로 문의 이력서 이메일 제출
- 접수 : accounting@kmarketusa.com

▶ 문의 : 703-507-2020

퍼스트 홈케어에서 직원 모집
- 간병인 / 코디네이터

▶ 문의 : 571-549-6789

미디어 중앙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 모집
- 모집 분야 : 편집/광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문의 : 703-281-9660
이력서 : kdclass2018@gmail.com

프렌즈 데이 케어에서 직원 모집
- 본사 스프링필드 : 한국 간호사
- 리치몬드, 뉴폿지점 : 사무 직원, 코디네이터, 방문 간호사

문의 : 571-424-7527/8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직원 모집
- 월, 화, 목, 금 8시 - 5시 근무
- 무경험자 시간당 $20

▶ 이력서 : naturadent@gmail.com

현스 홈케어 서비스 간병사 모집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시 추가 혜택 제공)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703-507-2492

첸틀리 러브핸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 경력 무관
-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 건강 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 문의 : 703-657-0944
▶ 이력서 이메일 :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hr@worldbankcard.net

탑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 센터빌 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 경험자, 무경험자도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 구함
- 사무 보조원
- Full / Part time 가능
-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 Chantilly, VA 20151
시간 :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 (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 사무직 유경험 ,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식당/식품

- 스시 쉐프 구합니다. (풀/파타임)
- 서버 구합니다.

703-628-9168

롯데 마트 직원 채용
- 채용직군: 커스터머 서비스 총괄 직원
- 급여: 매장 방문 면담이후 결정 (경력 유무에 따른 차등)
- 성별: 무관
- 전화번호: 703-858-2780
- E-Mail: va111@lotteplaza.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시니어 데이케어 시설 긴급 매매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한
어덜트 데이케어 시설을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 약 6,000 sq. ft. 규모
• 최대 100명 수용 가능
• 5년 장기 렌트 계약
• 시니어 데이케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비
• 즉시 운영 가능한 최적의 환경, 별도의 투자 없이 바로 시작 가능
문의: 571-278-8811

오래된 전문가를 믿으세요!
미셸 3D 눈썹
대박 $95 눈썹·아이라인 (1회)
• 오래된 눈썹 색수정 • 유지기간 2-3년
• 진짜 아픈가요? NO!! • 20년 경력
• 여자눈썹
• 아이라인 (2회)
• 남자눈썹 (2회)
• 입술 (2회)
• MTS (재생) (2회)
• 고주파 물광 스킨케어
• 앞머리, 뒷머리 가르마 타투로 채워드림
• 몸에 나는 가려운 점 빼드립니다.
점, 잡티, 검버섯 얼굴전체 집중치료 깨끗히 제거보장 2번
571-432-7108
6Days OPEN / 월-토요일 오픈 / 당일 예약 가능
(설악가든 근처, 까까뽀까 미용실 안에 위치)
4542 John Marr Dr. #A, Annandale, VA 22003

직원 구함
센터빌, 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 매장주소: 43930 Farmwell Hunt Plaza #100 Ashburn, VA, 20147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직원 구합니다.
- 찬모 / 서버
- 문의 : 201-407-5840 (문자)
이메일: hojin.choi@annangol.com

SuperMax Warehouse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십니다.
- 수산 및 야채 구매 보조 (트레이닝 가능)
- 유통업계 사무직
(경력 불문, 최소의 이중 언어 및 기본 컴퓨터 가능자)
- 근무 장소 : 챈틀리 VA
문의 : 703-665-2162 (마이클 임)
Email : info@theglobalfood.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 은퇴연금/건강보험
-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 파타임 모두 가능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
703-836-2130 / 703-328-3064

미래형 세탁 체인 사업에서 함께 성장하실분 모집
- 마케팅, 세일즈 매니져
- 테일러, 케쉬어
- 웨딩드레스 전문가 우대
* Pony Fabricare, Fairfax VA
문의 : 301-404-0701

기타 구인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님을 모집합니다.
Email 주소 :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 571-243-7027(taxt 가능)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싱글/타운홈 렌트

Woodbridge 타운홈 렌트 $3,100
방3, 화4, 2 Car garage, 탁 트인 구조의 밝고 예쁜 타운하우스, 나무 마루, 새 발코니, Walkout Basement, 넓고 환한 리빙룸, 고급스런 안방 화장실, Laundry Room이 방 근처에 있음.
즉시 입주 가능, 파킹장 다수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렌트 $3,000
방3, 화2.5, 1704sf, 파인크레스트 단지내, 편리한 교통
▶703-486-6082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싱글홈 렌트
방5, 화3, 완전히 리모델링된 집,
시니어 케어 홈으로도 적합,
베이스먼트 750sf 사무실로 사용 가능
문의 703-244-3453

맥클린 단독 주택 아래층 only 렌트 $2,300
방1, 화1, 거실, 랭리 HS, 워크아웃
▶703-642-6342

맥클린 싱글홈 렌트 $5,500
롱펠로우 중, 맥클린 하이스쿨 존
주재원 환영!
▶703-625-9909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 $7,995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전체 3층, 8 베드룸과 8 베스. 전체 8000 sf.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1층과 2층 (방5)만 쓰실 분 또는 아래층(방3)만 쓰실분도 가능
문의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렌트 $5,500
방5, 화4.5, 4800sf, 모든 가구 + TV포함
예촌 근처, 주재원 대환영 !!!
▶703-919-0472

비엔나 타운홈 $3,100
방3, 화2, 전체 마루, 옥튼 하이스쿨, Mosaic El,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패어팩스 코스코옆 타운 홈 $4,000
방3, 화2.55, 차고2, 2019년,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2,400
방 3, 화 2
▶703-642-6342

3년된 패어펙스 콘도 $2,100
방1, 화1, Garage, (구) Hmart 건너편
▶703-642-6342

패어펙스 콘도 렌트 $2,100
방2, 화1, Den, No Carpet, 물, 가스, 전기 포함, 교통 편리, 밝고 조용함
▶703-919-0472

방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방하나 렌트,
걸어서 5분거리, 인터넷 완비,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애난데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침대, 전자렌지, 옷장, 냉장고, 개인 주차 공간 있음.
571-232-6052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렌트, 유포 $700, 가구완비
(11/10 - 5/10일 6개월만 렌트합니다.)
571-970-8048

웃슨 하이 학군, 1층 렌트, 방1, 화1, 거실1, 주방 공동 사용, 별도 출입문, 파킹, 즉시 입주 또는 2층 방 하나 렌트합니다.
703-268-6771

애난데일 K마켓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타운하우스
3층 작은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편리한 교통,
여성분 환영 (대학생/직장인)
703-625-3712

센터빌 타운홈 방렌트
방1, 화1, WIFI, 주차, 조용한 여성분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홈 방하나 또는 방 2개 렌트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주방, 샤워룸,
조지메이슨 학생 환영
571-229-7124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큰 방 1, 작은 방 1,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1,700
나무 마루, Newer Windows, 새 페인트,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1. 에난데일 콘도 $199,900
방2, 화2, 업데이트하고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엘리베이터, TOP FLOOR (펜트하우스 스타일),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거실, 숲이 보이는 발코니, 파격적인 가격
2. 알렉산드리아 콘도 $429,000
방2, 화2, 예쁘게 리모델링한 콘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됨. 계단 없이 편리한 집, 고급 나무 마루, 멋있는 부엌, 업데이트한 화장실, 편리한 교통
▶703-813-8949

콘도 매매 $345,000
애난데일 콘도 방2, 화2, 굿파킹
▶703-642-6342

웃브리지 타운홈 매매 $469,000
방3, 화2+1, 업그레이드 많이 된 집
▶703-919-0472

스프링필드 싱글홈 $699,900
잘 관리된 단독 주택, 업데이트한 집 (지붕, 화장실, 창문, HVAC) 고급 나무 마루, 4층 구조, 넓은 주차공간, 그림같이 예쁜 앞마당과 뒷뜰, HOA 없음
▶703-813-8949

1. 클립턴 싱글홈 $1,495,000
방5. 화4.5, 차고3, 1 에이커, 현대적인 스타일의 아름다운 집
2. 클립턴 싱글홈 $948,000
방4, 화3.5, 차고2, 새지붕, 새SS Appliances Newer A/C, Water Heater등 관리 잘된집
3. 센터빌 타운홈 $700,000
방3, 화3.5, 차고2, Move-in ready, 파월초등, 새 쿼츠 카운터 탑, 최근에 지붕, A/C등을 많이 업그레이드 함.
4.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M
방6, 화4.5, 차고2, 새 페인트 새 카펫, New Paved Driveway.
▶703-919-0472

1) 폴스쳐치 싱글홈 $1,710,000
방 5, 화 4.5, 3902 sf, 2011년 레노베이션, 맥클린 하이 학군
2) 알링턴 싱글홈 $1,999,000
방 5, 화 6, 4275 sf, 2026년 신축 건물, RT-50에서 가까운 지역
▶703-486-6082

1) 센터빌 중장교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 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703-489-6926

1) 맥클린 Rotonda 콘도 $499,000
방2, 화2, 남향, 하드 우드, 주방/욕실 업데이트, 삼성 스마트 가전, 게이트 커뮤니티, 실내, 야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테니스 , 피클볼, 타이슨스 코너 인근
스프링힐, 쿠퍼미들, 랭리 하이스쿨 학군
2) 첸틀리 하이 타운홈 $819,000
방4, 화3.5, 차고 2, 밝고 넓은 앤드유닛, 오픈 플로어 플랜, 하드 우드 바닥, 그래나이트 주방, 데크 & 울타리 있는 뒷마당, 풍부한 자연 채광과 실용적이고 넓은 공강,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 넓은 3층 범프아웃 구조, 지하층 4번째 침실 & 풀욕실
3) 애쉬번 럭셔리 타운 $889,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군, 2015년, 3660sqft, RT50/66/267, 덜레스공항, 교통요지

4)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3, 화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편리, 생활 편의시설,495/95/Backlick Rd
5)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 1, 1788sf, 집전체 LVT 마루, I-66, 루트 29 & 15 접근 편리, 쇼핑, 식당 가까운 좋은 위치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패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3+1, 차고 2, 2000년 집, 전체적으로 아주 잘 가꾸어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3+1, 차고 2, 1999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 하우스 구입
4) 센터빌 타운홈 $873,000
방3, 화3+2, 차고 2, 2022년 지어진 집,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콘도 $425,000
올드 타운, 아주 좋은 위치, 방1, 화1, 4층 로얄층, 편리한 layout
2) 브리스토 타운홈 $679,000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703-625-9909

1) 페어팩스 타운홈$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 sf
▶703-231-5572

사업체 매매

픽업스토어 매매 $3만
주 4000, 페어팩스, 코비드전에 6000불 하던곳, 사이즈 1000sf
(문의) 240-381-8263 Hahn &
703-929-6689 로라

** 급매 $185,000 ***
KOREAN BBQ & HOT POT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리모델링, 저렴한 렌트
게이더스 버그, MD
(문의) 240-988-6868

스시가게 매매 합니다.
- 첸틀리 한국 마켓 내, 좋은 가격
(856) 283-5148

1. MD 디저트샵 $9만 천
손쉬운 운영, 매상 더 올릴수 있는 최고의 지역
2. 애난데일 식당 두곳 $15만, $35만
3. MD Fried Chicken 식당
$38만/주2만, 큰 대로변 위치
4. 그외 식당 , Beer & Wine Listing 다수
▶ 703-642-6342

1) Alexandria 상업용 빌딩
$2밀리언 / 4,500sf / 2Tenants
비어 & 와인 / 컨비니언 & 픽업
2) DC 상업용 단독빌딩
$160만 / 4,700sf.1/2acre lot
Beer & Wine W/컨비니언 스토어
▶703- 642-634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떡/잔치음식 전문점
oh! Market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각종 행사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잔치 음식 •반찬 전문
각종 떡, 단체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잔치 음식 주문 받습니다.
참기름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매장내 식사 가능 투고도 해드립니다
PARADISE CATERING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미디어 THE KOREA TODAY 중앙 직원 모집
미디어중앙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kdclass2018@gmail.com

1) Shabu 식당 $12만
Fairfax 카운티, 잘 꾸며져 있음
Good Parking!
2) 카페 + 델리 2,500 sf $14만
알링턴 카운티 번화가. 일식당 바꿀수있는
최적의 장소! 근처 경쟁이 없는 지역!
3) 애난데일 식당 3,000sf
4) 알링턴 3,000sf
컨비니언 스토어 w/빌딩!
$85만! Best Price!
5) Fairfax 한식/분식 하기좋은 식당!
$18만
▶703- 642-6342

패어팩스 20년된 미장원 $7만
w/Great Parking, 주인 은퇴함
▶703-642-6342

1) DC 유니온 마켓 근처, 3천sf
단독빌딩! 컨비니언 운영중
근처 재개발중인 투자가치
탁월한지역 $1.7밀리언
2) 타이슨스근처 1,800sf Lease Space
월 $4,800, I-5 zoning
3) 애난데일 리테일 Lease
Space 1천-6천 sf, 236 선상
(703) 642-6342

1) 주매상 $2만5천, 주5일
NW, DC. 2,500sf, 렌트 $5천/월
2) 본촌치킨, 주매상 $3만5천
3천sf, 대형 쇼핑 센터, 편리한 파킹
3) 애난데일 한식당, 4천sf
$15만, 굿 파킹
4) DC바/식당,바이어 대기중, 연락바람!
DJ Lee (703) 303-8003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 분식점, 샤핑몰내
매니저 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대로변, 높은 매상AP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 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303-8003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융자 가능
▶703-496-4989

성업중인 픽업스토어 매매
스태포드 $6만불
픽업 스토어건물 매매 $42만불
Tel: 703-231-5673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지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스페이스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 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으로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 골프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1. 콴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 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 sf,
1층 대로변, 포토맥 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 메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옷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스태포드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0만
2.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3.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미애 703-534-4989

중고 매매 / 기타

2칸짜리 웍 화로 필요하신분
(중국 식당용, 중고, 물 시스탬,개스)
703-401-9997

중고 장비 매매
각종 장비, 마루 타일 소, 테이블 소, 슬라이딩
암소, 일렉트릭 앵글 소, 각종 드릴 10 가지
메릴랜드 571-332-3987

케어피플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셀폰 신청
가능
교육기간 : 11/9 - 11/13 (전화 예약 필수)
(MD) 301-966-7000 /
(VA) 571-297-4747

리프트 2대 매매
가정용 리프트, 설치후 사용하지 않아 거의
새것임
703-268-0107

영작/피아노레슨

영어 서류 작성해 드립니다.
703-386-4256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30년 경력,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건축/페인트/마루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애버샤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덱,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센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 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 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
리닝,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 & 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TSP/연금/401K/IRA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03-688-2645

바른길 보험 조정사
주택부터 상가 비즈니스까지, 보험 약관이 보
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 보험조정사
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240-659-9286

Paul Kim(수봉) 종합 보험
메디케어·생명·연금·자동차·집· 사업체·
Worker's Com 보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합니다!
▶703-223-6961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30년 보험 경험으로 고객 한분 한분 직접 살펴
드립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2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 장비, 케리
아웃 장비 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
프, 정수 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전 기, 플러밍,
워킹 쿨러, 아이스 머신
**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시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 K14, K18, 셋팅전
문, 결혼예물, 돌반지, 각종 보석 감정 수리
*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내
▶410-480-247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씽크/디스포져, 워러 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썹 펌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전문 수리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 (차량 운송)
** 무료견적, 합리적 가격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 보험, 확실한 세관
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 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2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AWARDED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미디어 중앙 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한의원 / 부동산 / 데이케어 / 골프레슨 / 세무사

골프 레슨
L&C UNIVERSAL GOLF
571-225-5342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경희한국한의원
경희대학교
3인의 한의사가 진료하는 원인치료 전문 한의원
워싱턴 DC 일등 대한민국 한의원
"침, 한약 잘하는 한의원"
240.880.8817 / 301.709.7707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손쉽게 세금신고 하세요!
한국지부 010-2210-7346
미국지부 (VA, MD) 443-668-4311
이정호 세무사 US-KOREA TAX LLC 한국세무사 & 미연방세무사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져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썹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SOLUTIONS TAILORED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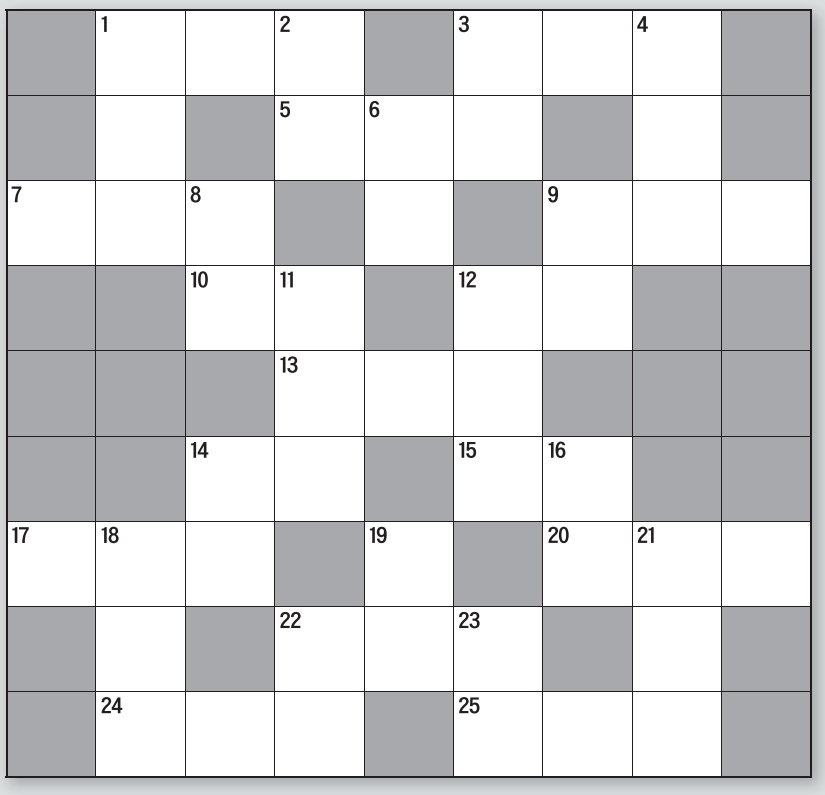
100% 한국산 프리미엄 자재
토탈 블랙아웃
Total Blackout LLC
공장직영 고품질 시공 합리적 가격!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블라인드·커튼·스마트틴트 (PDLC)
무료 견적 방문 상담
703-600-9031 Young Lee
6305 Meadow Glade Ln., Centerville, VA 20121
totalblackout4u@gmail.com



Top Quality Material from Korea
(주)월드블라인드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커튼 & 블라인드 전문
www.worldblind.co.kr
Vsion Inc.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스마트틴트 (PDLC) 전문
www.vsioninc.co.kr

낱말퀴즈 & 스도쿠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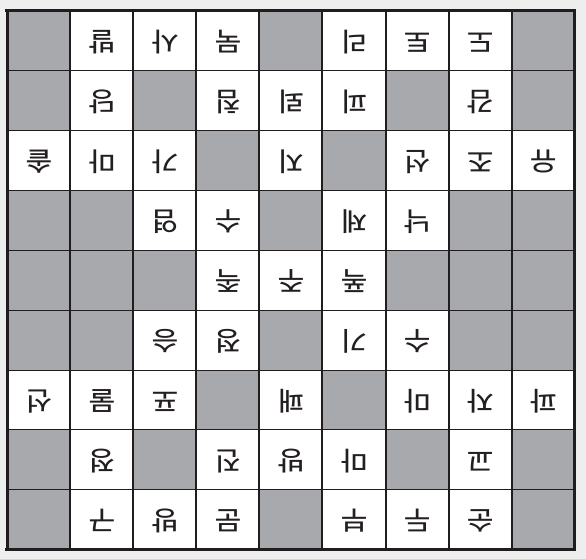


가로열쇠

(1)눌러서 굳히지 않은 두부 (3)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파는 곳 (5)자연수를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아지도록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 (7)헐렁한 윗옷과 바지로 된 잠옷. 인도 사람이 입는 통 넓은 바지를 이르기도 하죠 (9)던진 물체가 그리는 것과 같은 곡선. 그가 던진 공은 ~을 그리며 날아갔다 (10)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12)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13)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를 매우 빠르고 난폭하게 몰기를 즐기는 사람의 무리 (14)상급 학교나 상급 학년으로 진학이나 진급을 하지 못함 (15)성숙한 남자의 뺨에 나는 털 (17)석유나 천연가스 따위의 액체 화물을 대량으로 나르는 배 (20)아주 크고 우묵한 솥 (22)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금속제의 막대기 (24)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 따위의 열매 (25)얻어맞거나 하여 얼굴 따위가 형편없이 깨지고 뭉개진 상태. 그는 권투 시합에 나섰다가 ~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세로열쇠

(1)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2)임금의 사위 (3)책장이나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눌러두는 물건 (4)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6)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에 쓰던 무기 (8)처음에 팔리는 것으로 미루어 예측하는 그날의 장사 운 (9)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 (11)폭약이나 화약에 폭발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쓰이는 폭발성 물질. 큰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일 (12)모임이나 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의 인원수 (14)선거에서 떨어짐 (16)매우 싼 값 (18)새가 내려다보듯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19)땅속에 묻어 두어 밟으면 터지는 폭약 (21)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22)구멍이 여덟 개 있고 피리서를 꽂아서 부는 목관 악기. 관에 구멍을 뚫고 불어 소리를 내는 것. 목동은 소 등 위에 올라탄 채 버들가지로 만든 ~를 불고 있었다 (23)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떠나고 싶은 자/떠나게 하고/잠들고 싶은 자/잠들게 하고/그리고도 남는 시간은/~할 것(강은교)



스도쿠

2	4					5		
9		5						
			9		7	2	8	
6		3						5
	1			6	8			
	9	2		7				
8	2			9		6		3
			5	3	2	8		9
3		9		4	6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2	7	6	4	8	9	5	3
9	4	8	2	3	5	1	6	7
3	5	6	1	9	7	4	2	8
8	6	1	5	7	3	2	9	4
2	3	9	8	6	4	7	1	5
5	7	4	9	2	1	3	8	6
6	8	3	7	1	9	5	4	2
4	9	5	3	8	2	6	7	1
7	1	2	4	5	6	8	3	9



바쁜 피크타임, 아직도 전화 붙잡고 주문받으십니까?

TOGO / PICKUP, 이제 카운터 인력 없이 자동으로 받으세요!

전화 주문 받는 시간과 인력 낭비를 완전히 해결하세요!



우리 식당 전용 온라인 주문 시스템

고객이 앱/웹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면, 주문이 주방 프린터로 바로 출력됩니다.

매출 깎아 먹는 15~30% 수수료 NO!

주문금액 판매 수수료 0%



전화 응대 ZERO!
주문 실수 ZERO!
POS에 다시 찍을 필요 없이 주방으로 직행!



고객이 앱/웹사이트에서 직접 주문



주문이 주방 프린터로 바로 출력됩니다



바로 조리하여 포장/픽업 준비

모바일 앱 (우리식당 전용) | 주문 웹사이트 (우리식당 전용) | 푸시알림 (무제한 무료) | 멤버십/쿠폰 단골 관리 | 판매대금 식당 계좌로 직접 입금

- **사장님은 메뉴판만 주세요!** (앱·웹 구축부터 메뉴 등록까지 100% 대행)
- **기존 POS 그대로 사용!** (장비 교체 없이 주방 프린터만 연결)
- **무제한 무료 푸시 알림으로 신메뉴·이벤트 홍보 및 단골 확보**
- **주문 대금 식당 계좌로 직접 입금** (빠르고 투명한 정산)
- **노예 계약 NO! 약정 기간 없음**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매장 비치용 홍보물까지 무료 제작·지원!



WBS
WORLD BANKCARD SERVICE

매뉴판만 주시면 준비 끝! 지금 무료 시연 신청하세요
800-927-5675 / 703-225-5500
www.imidus.app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 $450
(교재비 :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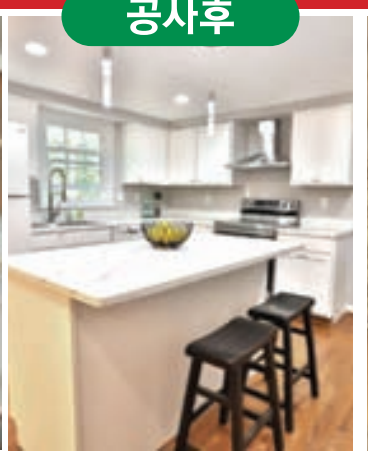
리스팅 접수 개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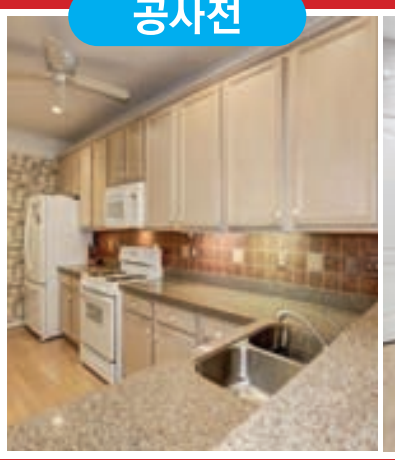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공사비(후불) :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USHI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 융자 가능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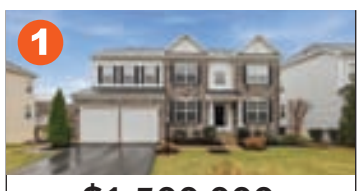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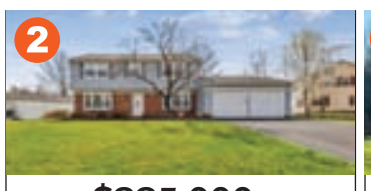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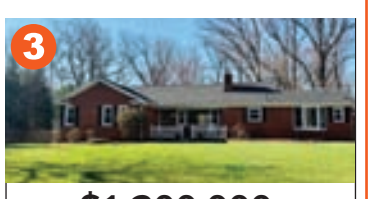
버지니아



1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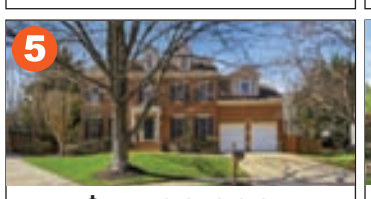
2 $8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좋은 가격에 아주 넓은 구조, 새 부엌



3 $1,3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땅 1 에이커, 페어팩스 병원 근처



4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가꾸어진 집



5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집, 챈틀리 HS



6 $2,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새집, 거의 다 지어진 집, 비엔나 한가운데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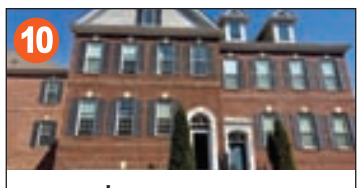
7 $1,1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고급 집, 잘 수리 된 이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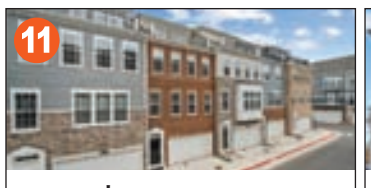
8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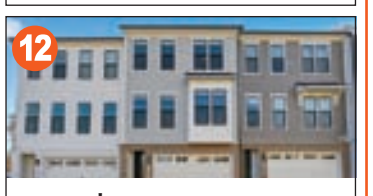
9 $1,999,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2016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



10 $8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013년,
법원 근처, 아주 넓은 구조, 우드슨 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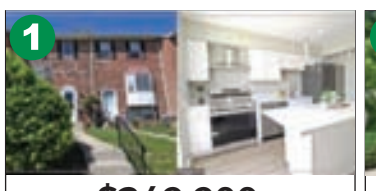


11 $985,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새집, 페어팩스 한가운데 위치, 고급 타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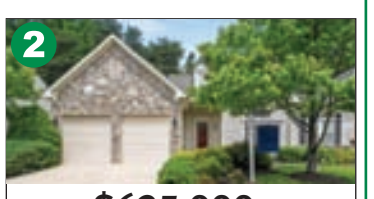


12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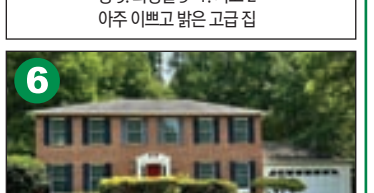
3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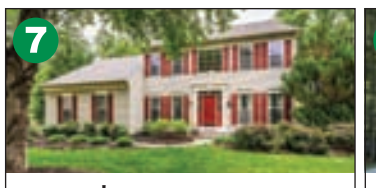
4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



5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6 $1,070,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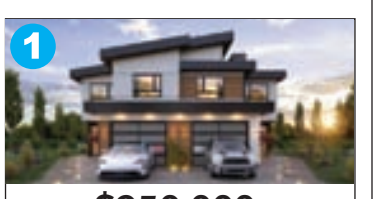


7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8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DC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3 $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



4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뒤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